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八面

社說 朝鮮米의 課稅問題

一

日本에잇서 米穀統制强化計劃의 韓道를 엇자 우리는 이미 朝鮮米에 對한 問題가 일어날것을 推知하얏고 또 朝鮮米에 對한 問題는 日本移出制限乃至禁止에 까지이르리라는것도 大槪想像하든바로 本欄에잇서 그危險性을 屢次指摘해왓엇다 지금 課稅說을 듣고 갑작이 嘆하고 驚愕할必要는 조곰도업는 날이로되 朝鮮米의問題는 全朝鮮人의 經濟를 左右케되는 重大한問題인만큼 다시한번거긔 對한 究明을 마지못한다 今番의 課稅說도 말하면 아즉 風說에 지내지 안는것으로 總督府當局者들이 一齊히 否認하고잇다 設使그것이 事實이라하더라도 우리가 그事實을 引證할아모材料와 消息을 가지지못햇다 그러나 根本的問題는 日本地主나 米穀商들이 朝鮮米에 對하야 極度의 敵意를가지는 그點에 잇지안하면 안된다 오늘의 이課稅說이 風說이라고하더라도 내일의 課稅說이 實際로 論議될것이며 또今番의 課稅說이 廉下私議에 잇치더라도 將來의 課稅는 豐富한 實現性을 띄우고잇다

二

朝鮮米는 一年間約七百萬石 價格으로 一億四五千萬圓어치가 日本內로移出된다 持越過剩과 豐作으로써 米穀洪水를 豫想하는 이때 朝鮮米의 移出을 어떠케 防止할까 하는것은 當然히 일어날 問題다 本來 요前者 米穀統制法을 改正할때부터 農林省內에는 勿論 議會에서까지도 朝鮮米에 對한 一定한 手段을 講究하자고 主張한사람이 만타 朝鮮統治政策上 不可하다는 理由아래 겨오 오늘까지의 保留를 보앗슬뿐이다 우리의 보는바로는 課稅가 早晩間實現될에 틀림이업슬것인대 總督府當局은 거긔 對해어떠한 對策을 세우려는가? 今番課稅說의 內容은 大槪 朝鮮米와 日本米의 生產費差額을 關稅로 賦課하고 그關稅收入으로써는 朝鮮農村匡救費에 使用하라는 것인데 總督府로써는 이와가튼 政策에 服從할으로써 滿足하려는가? 產米增殖을 計劃하고 奬勵한 總督府로써는 아모對策도업시 拱手坐觀할수는 업슬것이다 課稅說의 否認만으로써 安心치말고 모름즈기 어떠한 對策의 樹立을 汲汲히 서두르지안하면 안될것이다

三

日本米와 朝鮮米의 生產費差額이란 商品의 市場賣買價格을 無視하는 소리니 朝鮮米와 日本米와의 格差 또는 朝鮮米의 日本移出運搬費가 이미 그全差額을 意味하는것이 아닌가? 朝鮮米에 對해 課稅한 그收入으로써 朝鮮農村匡救費에 使用한다는것은 더한層矛盾되는 言辭니 朝鮮農村을 匡救하기爲하야는 차라리 課稅치안는것이 百倍나 낫지안한가? 그러나 이問題는 利害로써 決定되는것이니 論理의 當不當을 議論할 餘地가업다 勿論 첫재로는 課稅를 中止케하는것이 無上의 至良方策일것이요 이미 그中止의 希望이 斷絶하다면 그다음으로는 그對策의 樹立이 … 日本內移出의 朝鮮米보다

도 日本內의 朝鮮米移入이 더 [illegible] 가? 朝鮮米移出의 [illegible] 대는 勿論 日本內의 反對가 [illegible]

當局으로써 實行키 어려운것이니 그財源으로써 補償方策으로 實行하는것도 조치안한가? 朝鮮米의 課稅로써 日本內의 米價問題는 多少緩和되겟지만 朝鮮內의 農民은 더一層困迫하고 窮乏한 生活에 直面케한다 滿洲粟과 課稅로도 朝鮮農民의 生活은 威脅할것이 朝鮮米에 對한 課稅는 그以上의 威脅을 意味하지안흘수업슬것이다

太平洋會議席上서 日中代表大論戰

日 쏘이코트의 不當力說 中國代表 唯一한 防禦手段云云

【電通뺀쿠(카나다)十八日發】 今日汎太平洋會議에서 日中代表間에 兩國關係에 對하야 激烈한 論戰이 開始되엿다 日本代表는 中國의 對日쏘이코트가 不當하다는것을 力說하야 『쏘이코트는 一種의 挑戰行爲로 軍國主義者보담도 陰凶하고 毒한것입니다』고 喝破한데 對하야 中國代表는 日本의 軍國主義는 極東平和를 攪亂하는것이라고 痛擊하야 『쏘이코트는 武力이 劣勢한 國家가 使用하는 唯一한 防禦手段이라』고 反擊하얏는데 結局 兩者가다 會議當局에 對하야 平和機關을 改正할 方途를 硏究하기를 要請하엿다

歸國中의 宋子文

日本政府當局과 懇談? 國府外交部서 決定

【電通上海十九日發】 確實한 消息에 依하면 國民政府外交部는 米國에서 歸國途中에 잇는 宋子文으로 하여곰 二十五日 橫濱寄港時 日本政府當局과 懇談하도록 決定하고 이미 駐日公使館에 準備하도록 電命하얏다

勸銀實行利率 旣往것도 引下

【電通東京十九日發】 旣報와 가티 勸銀에서는 第三回實行利率의 引下를 實施키로 內定하고 其引下利率의 點에 對하야 調査中인데 今回의 利下는 다만 新規貸出에만 限定치 안코 同行의 貸付中에는 舊農銀으로부터 引繼한것으로 九分으로써 貸出된 高利率의것이 잇는 點에 鑑하야 斷然 旣往의 貸付에도 波及케하고 特히 法律改正이 必要한 年賦償還의것은 過渡的 辦法으로 爲先割戾金制를 採用하야 實質的 利下를 實施하고 來議會에 法律案提出을 行할 方針이라 한다

廣東省政府 陳炯明逮捕發令

【廣東發】 廣東省政府에서는 十一日突然 陳炯明逮捕令을 發布하엿는데 이것은 十九路軍의 蔡廷楷로부터 陳炯明은 日本人과 連絡하야 福建省의 土匪와 共產黨을 買收하야 治安을 攪亂하려 함에 더러 陳炯明은 目下上海에 잇는데 福州 廈門 汕頭 廣東의 各地에 部下를 派遣하야 秘密工作을 하고잇다는 電報가 온닭이라 한다

太平洋會議의 意義

그 由來, 朝鮮人과의 關係

洪陽明

◇

目下加奈陀의 로-키山脈에 沿한 避暑地 『밴프』에서 開催되여 日本代表와 英國代表間에 日本의 英領에 對한 綿業貿易問題論爭으로 相當히 吾人의 注目을 끌고 他面 日中代表가 國際에 위와가튼 論爭을 되푸리하고 또 일즉이 朝鮮代表의 出席等으로 相當히 吾人에게 알리워저잇는 太平洋會議는 正確히 말하면 太平洋問題硏究會 定期大會의 俗稱이니 이會의 正確한 일홈은 太平洋問題硏究會(Institute of Pacific Relations)으로 中國에서는 太平洋學會協會로 通用되고잇스며 日本에서는 太平洋問題硏究會로 飜譯되여잇는것으로 이會의 常設本部라고 도할 事務局(Secretariat)은 布哇의 호놀루루에 잇고 常設協議機關이라고 도할 理事會(Council)가 잇다 定期大會는 每二年에 開催하는데 그第一回와 二回大會는 布哇에서 開催되여 朝鮮人으로써도 申興雨氏 金活蘭氏 兪億兼氏 白寬洙氏 金活蘭氏等이 出席하얏섯스나 第三回京都서 開催된 大會에는 代表資格을 認定치안키 때문에 出席하지못하고 오직 尹致昊氏가 賓閑演說을 하얏슬뿐으로 爾來朝鮮支部는 事實上 機能을 喪失하고 만것이니 이것은 加入單位에 民族單位를 國家單位로하자는 日本支部側의 意見이 原則으로써 成立되기 때문이엇다 第四回大會는 再昨年九月 杭州에서 開催하려다가 滿洲事變發生直後인만큼 微妙한 日中代表間의 關係 때문에 開催地點을 上海로 變更하야 中國代表陳立廷氏와 日本代表新渡戶博士間에 『侵略行爲』란 陳氏의 말 때문에 一場風波를 이르켜 休會에 지되엿다가 中國側의 形式的謝過로 無事히 會合을 마치엇스나 今回의 大會는 第五回大會이다

◇

이會가 하는 일은 이會에 綱領에 나타난바에 依하면 『太平洋沿岸諸國間의 政治的 經濟的 文化的 外交關係의 向上改善을 企圖한다』는것으로 非官僚 非當局인 政治家 學者 宗敎家를 中心으로 國家的偏見 國家的利害關係를 眼中에 두지안코 人口問題 食糧問題 移民問題 鑛物問題 敎育問題等 太平洋民族間에 互한 諸問題를 解決한다는것이다 이會合은 元來 米國의 銀行家 『그린』氏外 布哇에 居住하는 米, 日, 中의 宗敎家 學者들의 斡旋으로 一九二四年 布哇서 創立된것인데 太平洋沿岸에 位置한 諸國은 當該國에 이와 目的을 가튼 有力한 學者 宗敎家 實業家等을 網羅하야 當該國本位의 委員會를 두어 大會에 代表를 보내기도 하고 또 大會에서 本部委員으로 選擧도 될수잇게 되엿것이다 그러나 事實上 各國의 協會는 會員이 그리 만치못하고 大槪는 在野의 外交家的 學者的 傾向을 가진사람과 Y,M,C,A 關係者들이 中心이 되여잇다 日本으로 말한다면 新渡戶博士, 鶴見祐輔氏, 稻原勝治, 齋藤惣一氏 가튼사람, 中國서는 學者로 行勢잘하는 胡適氏가튼사람, 基督敎系巨頭 余日章 가튼사람이 中心이 되여잇다 그럼으로 이大會에 出席하는 代表란 當該國家內에 在한 이學會에 加入한 會員의 代表일것이오 假令말하면 朝鮮代表云云 하는것은 勿論 取할수업는 우수운말입니다

◇

또 現在 이에 加入한 各國支部는 日本, 米國, 中國, 英國, 濠洲, 加奈陀, 新西蘭, 比律賓의 九個支部로 比律賓은 獨立國은 안이지마는 그主權國인 米國이 反對치안키 때문에 一個의 獨立한 支部로 參加하고잇스며 加奈陀, 濠洲, 新西蘭과 가튼 自治聯邦은 獨立國이나 다름업시 外交關係를 自律하고잇슴으로 勿論이오 英國은 太平洋에 面한 國家는 아니지만 그領土가 太平洋沿岸에 널니 分布되여잇는 關係로 이에 加入되여잇다 또 이會는 이會議에 寄附로 모힌 相當巨額의 硏究費를 各國의 專門家에 給與依賴하야 硏究調査한 報告를 黨議에 採擇하야 關係各國政府에 그實行을 促進하는것을 有效케하기 爲하야 努力하고잇는데 이目的을 爲하야 國際聯盟事務局 國際勞動事務局 其他各國政府에서 派遣한 代表를 『옵써버』의 資格을 주어 會議에 參加식히고잇다 또 이會는 太平洋沿岸國으로써 利害關係가 큰 蘇聯의 代表를 招請하엿스나 蘇聯邦에서는 『옵써버』를 보낸다고만 할뿐으로 아즉 派遣한 記憶이 업다 太平洋會議를 고하는것은 要컨대 이런 意味의 學者 思想家 基督敎徒等의 社會事業家等의 (이른바 自由)評價하게 한다는 權威잇는 學術調査硏究機關이라고 할것이다 그리고 이번 會期는 八月十四日부터 二十九日까지 이다

蘭領東印度에서도 輸入品五割課稅

實施되면 綿布에 大打擊

【聯合바다비아十九日發】 蘭領東印度政府는 十九日政府財政의 强化를 企圖코저 輸入稅引上을 國民議會에 提出하얏다 右案은 輸入現行本稅에 다시 五割의 附加稅를 課하려는것으로 右가 實現되는時는 綿絲綿織物 其他相當의 打擊을 受하게 된다

다 一方이와 同時에 爲替標準의 低下는 必然的으로 資金의 코스트의 低下를 前提로 한것으로 同行

심라會商代表 二十二日東京發

【電通東京十九日發】 日印심라交涉에 出席할 日本政府代表 澤田, 寺尾兩氏는 十九日午前十時 齋藤首相을 官邸에 訪問하고 人事를 述하엿다 그리고 兩代表는 二十二日午後七時三十五分 東京驛을 出發하야 大阪에서 一泊하고 二十四日 神戶에서 解纜할 白山丸으로 渡印하기로 決定하엿다

旅順大連面方에 某國軍艦突現

【聯合東京十九日發】 十九日 大連東南海上約五十浬를 隔한 圓島에 잇는 砲臺監視所로부터 陸軍省에 達한 報告에 依하면

一, 十六日午前九時부터 十時半頃에 某國驅逐艦二隻이 同島周圍를 廻航하야 로자 최후를 감추엇다

一, 同日夜에 再次右二隻과 他一艘이 長山列島附近에 來航하엿다가 仁川方向으로 向하엿다

一, 十七日朝 前記某國驅逐艦二隻은 또다시 圓島周圍를 巡航하야 仁川方面으로 向하엿다 그後未久에 旅順方面으로부터 國籍不明한 二隻의 軍艦이 來航하야 一隻은 南方에서 一隻은 北方에서 全速力으로 同島를 巡航하고 仁川方面으로 向하엿다 그리고 鴨綠江西方海岸을 警戒하고잇는 警察隊의 通報에 依하면 大孤山南方海上에 米國國旗를 揭揚한 中國軍艦이 碇泊하고잇는데 或은 兵器類를 兵匪에게 密輸入하지나 안엇는가 疑心된다

天皇陛下 二十一日還幸 宮內省發表

【聯合東京十九日發】 天皇陛下께서는 海軍抗演習御統裁를 다하시고 御還幸하실것을 仰出한바 御豫著 御日割은 二十一日午前九時三十分 橫須賀御入港 同十一時 橫須賀御發 同十三分 逗子御着還幸하실터이다

日印會商 訓令案에 對하야 六省次官會議開催

最後的訂正을 加하고저

【電通東京十九日發】 日印會商條約交涉에 關하야 二十四日에 出席할 澤田, 寺尾兩代表가 携行할 訓令案에 對하야 十九日午前十時부터 外務省第一會議室에서 關係六省次官會議를 開催한바 澤田, 寺尾兩代表와 重光外務, 黑田大藏, 吉野商工, 石黑農林, 大橋遞信, 河田拓務各次官과 其他 栗栖通商局長과 代表隨員等이 出席하야 過般來 外務, 大藏, 商工三當局間에서 協議를 거듭하고 內定한 訓令案에 對하야 最後的訂正을 加하고 各次官으로부터 種種意見을 開陳하고 訓令案의 事務的決定을 行하고 午後一時 散會하엿다 右의 結果로 訓令案은 二十二日 閣議에 上程하야 正式決定을 어든後 澤田寺尾兩代表에게 手交하기로 되엇다

決定한 訓令案大綱

【電通東京十九日發】 日印通商條約交涉에 對한 日本政府의 訓令案은 十九日 關係六省次官會議에서 決定하엿는데 其大綱은 左와 如함

一, 日印間에 새로 締結할 通商條約은 相互主義에 基한 最惠國待遇確保를 根幹으로 할것 그리고 正式條約을 締結하기 困難한 境遇에는 右記主旨에서 日印間通商航海關稅關係暫行協定設定에 努力할것

一, 日印間相互許容할 兩國의 產業과 貿易關係의 現狀에 適合한것으로 할것

一, 今次交涉의 課程에 잇서 十月十日의 現行日印通商條約失效期日이 到來할 境遇에는 日印關係를 無條約國關係化하지 안토록 印度當局의 自發的考慮를 特히 要求하고 辦法的暫行協定設定을 促進할것

一, 現行條約이 失效될時에 印度當局은 日本商品에 對하야 現在에 施行하고잇는 關稅政策 其他를 加重치안토록 極力要求할것

一, 日印交涉의 細目的事項에 對하여는 討議가 段階에 이를때마다 本國政府에 請訓할것

有吉公使 黃郛會見

【東通上海十九日發】 黃郛는 十九日 南京에서 上海에 왓는데 同日中에 有吉公使와 會見할터이다

輸出入다增加 八月中旬貿易

【電通東京十九日發】 大藏省發表 八月中旬의 貿易은 別表와 如히 前年同期에 比하야 輸出은 一千九十八萬圓 輸入은 一千三百五十萬四千圓으로 增加되엿다 其內容은 輸出品에 잇서는 生絲는 增加가 업고 生絲는 數量에 잇서 減少되고 他方 綿花의 輸入은 依然 數量과 價格이 모다 增加되엿다

秋繭値基 卅九掛?

秋繭値基協定協議會는 二十一日 總督府第二會議室에서 總督府立會下에 各道蠶業主任官이 列席하야 當業者와 懇談을 行할 決定인데 大體의 掛目은 三十九掛일듯하다

北朝鮮鐵路局長 齋藤氏로 內定

滿鐵移管後 北朝鮮鐵道는 北鮮鐵路局을 設置하여가지고 同局에서 經營하기로 되엿는데 初代局長에는 前般退官한 鐵道局工務課長 齋藤固氏가 就任하기로 內定되엿다 職制는 아즉 不明이나 庶務, 營業, 工務, 運輸의 四科로 될 模樣으로 大橋庶務課文書主任과 淸津出張所 古川敬介氏等 十余名事務가 鐵道局으로부터 轉任하게되고 滿鐵로부터 二科長이 轉任하게 되리라고 觀測된다

駐獨公使 歸任中止

【電通維也納十八日發】 十七日 伯林으로부터 維也納에 歸還한 墺國公使는 當分間 休暇의 形式으로 歸任을 中止하엿다가 獨逸이 墺國의 抗議에 對하야 滿足한 保障을 承諾치안는다면 永久히 歸任치안코 英國大使에게 獨逸에 對한 墺國의 利益을 代表케할 方針이다

【本社世界一週紀行】 폼베이舊跡과 羅馬의 廢墟 (四)

李順鐸

羅馬의 七丘인데 丘上은 다-公園으로 市民과 旅客의 行樂之地가 되여잇다 이七丘에 沿하야 上古로부터 現代에 이르기까지의 美術的建築이 倂立해잇는데 그 壯觀이며 美觀이 이에 덜홀者업다 特히 『파라티노』(Palatino)丘에잇는 各種建築과 施設의 舊蹟는 紀元前七百五十三年의 羅馬의 文化를 이제오히려 天下에 자랑하고잇다 三千年의 文化가 繼續한 歷史的古都인만큼 그

現羅馬市는 人口百萬 『티벨』(Tevel)江은 市를 貫流한다 世界에서 가장 有名한것은 羅馬

史蹟勝地 는 今日世界에 이에 比肩할者가업다 따라서 一一히 求覽하기도 어렵거니와 一一히 紹介하기는 더욱어려운 일이다 그럼으로 가장主要한 몃가지만 그려볼가한다

『코로세오』(Colosseo) 이것은 圓劇場가튼 鬪技場인데 紀元七十年頃에 有名한 羅馬의 暴王 『네로』(Nero)가 이建築을 始作하야 現에보는 四層建物로 完成하기에는 約百五十餘年이 걸렷다한다 紀元八十年에 『티터스』(Titus)王이 비로소 開場式을 行햇는데 百日동안을 公開鬪技하는동안 實로 牛馬五千頭가 이때문에 걱구러젓다한다 그둘레는 五百六十九尺 面積은 자세치아니하나 能히 八萬人을 容納할수잇는 巨大한建物이며 이建物의 外部는 石灰石이오 內部는 煉瓦와 大理石이다 그構造의 妙는 놀날수밧게업다 東京의 神宮野球場은 이式인듯한데 規模가 나 다를뿐 最初建設의 目的은 鬪技場으로 使用하려는데 잇섯지마는 歷史的으로보면 어느때에는 力鬪場으로 利用되엿고 또어느때에는 砲臺로 利用되엿고 그러나 한가지 이를수업는 일로는 이것이 中古에

基督敎徒 의 大虐殺場으로 利用되엿다는것이다 有名無名한 聖徒들이 殘虐한 羅馬의 君王때문에 그主要한 生命이 이 鬪技場의 이슬(露)로 시러진 數는 그얼마일고 그때문에 今日이 鬪技場의 正門卽入口의 廣場에는 過去에 虐殺當한 殉敎徒의 靈을 慰撫하기爲한 紀念碑가 서잇는데 그압헤서는 默禱하는 敎徒들이 踵接한것을 目擊하엿다

『에마누엘』二世의 紀念閣과 『가리발듸』의 銅像 羅馬市의 한복판 四通八達한 地點에는 伊太利를 統一한 明君 『에마누엘』(Emanuel)二世의 紀念閣이 잇고 이紀念閣의 正面中央에는 그 乘馬形大銅像이 잇다 全部伊太利特産인 大理石으로 建造하고 그裝飾은 全部 『모세익』으로 되엿다 雄大美麗는 世界에 第一을 자랑하는데 이는 同時에 伊太利統一獨立紀念閣이라고도 稱한다 正面左右에는 番兵이 서잇스며 層層臺의 中間쯤에는 過去世界大戰當時 無名戰士의 慰靈所가 잇다 몬저 도말한바와 가티

伊太利 는 統一前約千年間은 數多의 小國으로 分裂하야 恒常外國의 干涉을 바더오든中 十九世紀以後에는 墺地利의 覇力이 北部伊太利를 風靡하야 有名한 『메테르니히』(Metternich)의 政策下에 自由統一의 精神은 더욱히 抑壓되엿다 이에 伊太利志士들은 秘密結社를 組織하기 始作하엿는데 여기에 맛참 『사루듸니아』王 『에마누엘』二世 明君이라 人民과 相呼하야 結局 어려운 伊墺戰爭에 勝捷해가지고 千八百六十一年에 『베니스』, 法王領等을 合倂하야 統一된 伊太利王位에 卽位하엿든것이다 이紀念閣은 千八百八十五年에 起工하야 千九百十一年에 竣工하엿다는데 그 高는 約二百尺이다 有名한 『못소리니』의 事務室은 곳 그正面左側에 잇다

羅馬市는 昔日 五十尺되는 城壁으로써 繞圍되엿섯는데 그周圍는 十四哩에 及한다 이는 羅國時代에 築造한것으로써 十九世紀末葉에는 砲臺를 建設하야 市街의 防禦를 꾀하엿다 그西便의 宮殿城우에는 千八百九十五年에된 有名한

愛國志士 『가리발듸』의 騎馬銅像이 羅馬全市를 내려다보고잇고 그압에 그夫人의 銅像이 이를 우러러보고잇다 『가리발듸』는 『니스』(Nice)出生으로 千八百四十八年에 前記 『마씨니』와 結託하야 伊太利靑年黨을 組織해가지고 羅馬市民을 煽動하야 法王을 追放햇든데 佛國의 來援으로 이運動은 不成功에 歸하자 氏는 米國으로 流寓하다가 千八百六十年에 『에마누엘』王이 伊太利統一의 兵을 擧하야 이에 應하야 義勇兵을 거나리고 『나포리』王國을 征服하야 이를 『사루듸니아』에 밧처 千八百六十一年에 伊太利王國創立을 도읍고 自己는 모든 榮譽를 辭하고 故地로 도라갓다 그紀念碑에는 『千八百四十九年의 羅馬의 防禦』 『千八百六十年의(Calatafimi)(카라타피미)의 戰役』이라고 색여잇다 이것은 特히 그當時의 勳功을 나타내기 爲한것이다 나는 이銅像압에 休息하는 一靑年伊太利人에게 『가리발듸』가 그대지 有名하냐고한즉 『가리발듸』라는 말은 伊太利自由統一 이란말과 갓다고하면서 웃는다 나는 우스면서 今日의 『못소리니』는 第二의 『가리발듸』가 되겟느냐한즉 아니다 『못소리니』는 『가리발듸』以上이다 하면서 亦是따라웃는다 紀念閣이나 紀念碑나 紀念銅像等이 아니라 이것을보고 故人들의 偉業을 생각해낼때 그後生에게 주는 無形한 精神的敎訓 그것이 偉大한 影響을 끼치는것이다

『산·페트로』寺院(S.Pietro)은 世界에서 建築物로나 歷史的으로나 그안에 藏置한 寶貨로나 어떠한 方面으로든지 첫재가는 寺院은 곳 이寺院이다 이는 羅馬의 西便 『바티칸』(Vatican)市의 中央에 잇는데 그外部의 宏大華麗하며 內部의 形容할수업는 各種 有名無名한 寶貨의 裝飾 彫刻 壁畫 『모쎄익』을 보지안코는 到底히 그 高貴한 程度를 알지못할것이다 그리고 그正面廣場의 廣濶하며 이를 繞圍한 四列의 大大理石圓柱로된 廊宮의 妙와 그欄干에 서잇는 聖徒들의 大理石像의 美妙 또한 이를 보지아니하고 알수업다 이 숩고 큰

大圓柱는 그數 二百八十四인데 聖徒의 石像은 百六十六이라한다 廣場은 全面이 平板石으로 정연히 깔엇는데 그中央에는 埃及에서 가저온 華麗한 花崗石의 方尖塔(Obelisk)이 서잇고 그左右에는 美妙를 極한 噴水臺이 水量에 富한 噴水를 하고잇다(寫眞은 羅馬市의 一部)

日曜夕刊休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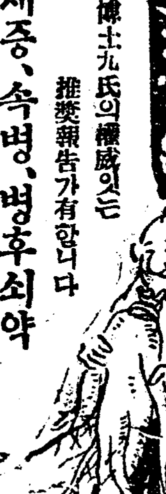
慣例에 依하야 八月二十日은 夕刊을 發行치 아니합니다

朝鮮日報社

털나게하는 博士의 藥
毛根의 肥料·毛莖의 日光
雨露의 惠澤으로 草木은 成長하고, 사람은 情으로 산다고 俗謠氏는 노래하고, 野邊의 草木도 雨露의 惠澤으로 生育하는 모양을 보면, 하는 노래가 小學校의 唱歌에도 採用되여 잇습니다. 雨露의 惠澤, 그것은 털(毛)의 肥料이며, 즐기에는 日光바게 업습니다. 人間의 身體에 密生한 毛髮도 꼭 草木과 갓해서 枯死에 瀕한 草木에 豐沃한 土壤과 肥料와 日光을 與하면 蘇生, 發育하는것과 가티, 斯界專門의 田中醫學博士가, 各人이 先天的으로 갓고잇는 毛根의 發育을 妨害하는 原因을 除去하는것(地盤의 培養) 毛髮基定部에 榮養을 賦與하는것(肥料) 毛髮發生으로 因하야 刺戟을 주는것(日光)에 重點을 置하고, 가령 草木에 對한 土壤, 肥料, 日光의 三點에 對하야 多年間, 功究沈潛하야 드듸여, 完成된것이 毛生藥(후미나인)이외다, 적어도 毛髮의 不足不調和에 煩惱하는 분은 最近藥房에서 求하시옵소서, 適應症, 禿頭病, 若禿, 薄毛, 脫毛, 腫物禿, 다리, 옥지 싸진것, 眉毛 엷은것, 맥시 난것, 男女間에 잇서야할 곳에 털업는분에게 쓰면 奇妙히 털을 나게하고 脫毛를 中止식힙니다
털나는藥 후미나인
價, 五十錢, 九十錢, 一圓六十錢, 三圓, 五圓五十錢, 送料內地十二錢, 全國到處의 藥店에 잇슴, 萬一品切되엿는 代金을 添付하야 左記發賣都家에 注文하사요.
模造品이 만흐니 必히 후미나인이라 指名하시고 사십사요
發賣元 東京市芝區田村町四 電話芝一八七四番 振替東京三一八三二番 東京藥院
大阪市赤十字病院前 電話南一二四六番 振替大阪五〇八一八番 東京藥院
(說明書進呈) 詳細說明書申込次第送呈

五山高等普通學校 補缺募集 (京義線古邑驛)
一, 二, 三, 四學年 若干名
出願 八月末日까지 試驗 九月一, 二日 (詳細要照會)

醫學博士九氏의 權威잇는 推奬報告가 有합니다
●체증, 속병, 병후쇠약
●消化不良, 神經衰弱
●서체, 설사, 영양부족
蔘茸印 人蔘엑기스
『身外無物』이란 옛말과 가티 身體가 健康티 못하면 모든것이 쓸데업습니다 不健康한 사람에게는 財產도 名譽도 아모것도 貴치안코 오직 健康한 몸이 되기를 바라는것입니다 病이 잇는 분은 勿論이오 虛弱한 분이나 몸이 虛弱하여지기 쉬운 분이나 이러한 분들에게는 『人蔘엑기쓰』를 잡수십시오 藥效는 神效하고도 갑은 다른약보다 헐하니 『人蔘엑기쓰』를 잡수어보신분은 그 效力이 偉大한데 모다 感嘆하지안는 분이 업습니다
▲관공서에는 [illegible]
(特徵) 人蔘二斤服用以上의 效力이 有함
(藥價) 一年分 十五圓 百日分 五圓 五十日分 三圓二十錢 三十日分 二圓 十五日分 一圓十錢 送料代引은 四十錢 先金時送料不要
一 地方駐在社員 一 人蔘特約店募集
特約藥店募集
朝鮮開城南大門通 開城特産貿易組合 振替京城二一五六二番



災後絶糧된慶北에 靑苗典執者續出

拔穗前農作을豫賣抵當하여 可憎한高利貸金魔들

【大邱】 날로피폐하야가는농촌은 해마다이만써가되면 농민들은 주린창자를 움켜잡다못하야 할수업시 한해여름권가족이 애써지은 곡식을 거두워보지도못하고 소위청전(靑田)을 팔게되는것은 이것이 비단경북만에 국한된현상이안이라 이는 전조선적으로 공통한 농가의비극인바 더욱히 경북지방은금년여름 미증유의홍수로인하야 세농(細農)층의 생활은 여지업시되여 그들은 할수업시푸른곡식을 권답에세워둔채로 그것을팔어먹거나 혹은 그것을담보로 얄미운 농촌고리대금업자들에게 고리대금을 쓰게되는현상이격증하여 가고잇다는데 이에대하야 당국자측에서는 그것은 단순한 대차(貸借)관계라고 하야어찌할수업시방관하고잇다한다

大邱府內染病 患者벌서三百名

一般의注意가肝要

【大邱】 대구부내의금년일월부터 팔월중순까지의 전염병환자발생수는 십칠일현재로 성홍렬(猩紅熱) 일백구명을 필두로하야 천연두(天然痘) 칠십구명 장질부사(腸窒扶斯)사십칠명 적리(赤痢)삼십팔명 기타 지푸테리아등을합하야 총계 이백구십삼명에달하는바 그중 조선인은 장질부사와 천연두가만코 일본인은꽤리가만타 부위생과장의말을들으면 전염병은 지금형편으로는 더욱만연될념려는 업서보이나 환절기를당하야 추풍이나게되면 천연두가 만연될념려가 잇는까닭에 그대책으로 다시 일반시민에게 종두(種痘)를하도록 할가하야 생각중이라고한다

아이쌈으로 어른이亂鬪負傷

家族總出의活劇

본적을보은군(報恩郡)에둔김운제(金雲濟)(四一)와본적을청주군(淸州郡)에둔최동서(崔東緖)의두집식구는 고양군한지면 향당리(高陽郡漢芝面香堂里)오십일번지의 한집안에서 살아오든바 십칠일오후 열한시경에쌍방의가족권부가 나서서 큰싸홈을 하얏는데 차홍끗헤 김운제는최동서의모 강씨(姜氏)를 구타하여즉시 인사불성에 이르게하엿스며 최동서는 김운제의커를구타하여 역시인사불성에 이르게하여 노앗슴으로 동네문서에서는전귀두명을 불너다노코 업수히녁이한다음 돌여 보냇다하며 싸홈의원인은 두집의 아이들새홈이어른싸홈으로 되여 결국그와가티 대란투를 한것이라한다

◇哀愁깁흔李灌鎔博士追悼會

고 리관용박사의추도회는예정대로 십구일밤여덜시반부터경성중앙긔독교청년회관에서 홍명희(洪命憙)씨의사회로개회하얏다 개회하기전에 회장정면추도단(追悼壇)우에는 고리박사의초상이 박사의생시면모그대로엄연히화환(花環)속에모시어잇섯고식장안에는우층아래층으로립추의여지도업시참석인으로백백하엿다 조악(吊樂)으로개식하야주요한(朱耀翰)씨로부터고리박사의략력보고가잇고연희전문학교대표 유억겸(兪億兼)씨외작게유지제씨의추도사와 리순갑(李順甲)양의 애가(哀歌)와 기외조선각지에서온 문조전(弔文弔電)의랑독이잇섯는데 식장이구석구석에는 눈물을흘리며 흐늑거우는소리가들렷다 조선일보광주(光州)지국에서 온조문(弔文)중은경찰서에압수되엿고 가족을대표하야 고인의백씨되는리원용(李源鎔)씨의 인사말이잇슨다음 [illegible]목사, 歌頌)삼분이잇고서 조악(吊樂)으로 식은장중히마치니 때는열시구분이엿다

全南에또水害 麗水서三人溺死

列車도一時不通

십칠일 오후네시부터 전라남도남부지방에는 또다시 폭풍우가떠부어 영산강(榮山江)은륙메돌십이가증수되야 피해가만타고하며 려수(麗水)군하에서는 세사람이 물에빠저죽고 가옥몃채이문어젓다한다 그밧게도 도내각지에 침수가옥이 삼십호요 도로가문어진것이 두어군데며 담양(潭陽)광주(光州)간은 선로(線路)에 침수가되야 일시렬차까지 불통이되얏든바 십팔일아츰에복구되얏다한다

拳銃犯搜査에 副産物만생겨

【江界】 루보=강계문파출소권총 도난사건은 련일련야수사에 로력하고잇스나 그보람도 업시 경찰미궁으로 들어가단서조차 엇지못하고잇는데 엄탐하는 권총범인은안이나오고 부산물만 작고생기여 수사며로하여금 더욱애를타게한다

◇ 십사일에 체포된 강계군공북면 향하동김종연(江界郡公北面香河洞金鍾衍)이는 취조한결과의외에 강간미수 폭행등의죄를 범한자로판명되엿고 ◇ 십오일남대문외에서 아편(阿片)밀매자 한명이 수사대에게체포되는동시 아편두덩어리를압수하엿고 ◇ 십륙일에는 남문파출소에서 『스리』한명을 체포하야취조중이다

全京城野球軍 歡迎慰安會盛況

都市對抗野球大會에出戰하야 決勝戰에 압갑게敗한 全京城野球軍을 慰勞하는모임은 十九日午後二時부터 公會堂에서 開催한바 參席者三百餘名에達하는 大盛況을이루웟다

甲子園中等野球

◇準決勝經過◇ 野球史上初有事 延長二十五回의接戰

中京1A…0明石

【電通大阪十九日發】 甲子園中等學校優勝野球大會準決勝戰인明石中學對中京商業戰은 十九日午後一時부터 甲子園球場에서 明石先攻으로 開始兩軍이모다優勝候補인만치技量伯仲하야接戰또 接戰今日까지 行한 中等學校의 最大記錄을 突破하고 延長二十五回에이르는中等學校의 一大新記錄을作成하엿다 드듸여二十五回裏에 明石의好守도 效업시中京貴重한一點을어드니試合所要時間五時間五分結局 1A對0으로中京商業凱歌를부르니明石中學은 涙惜敗하엿다閉戰午後六時三分

平安4……0松山

【電通大阪十九日發】 中等學校優勝野球大會準決勝平安中學對松山中學戰은 十九日午前十時부터平安先攻으로開始結局四對零으로平安勝

得點 平安 000030100=4
得點 松山 000000000=0

中京商業…平安中學 決勝戰은午後二時부터 甲子園球場에서開始

今日의運動

▲大每主催西日本自轉車選手權朝鮮豫選은午前九時부터京城運動場

▲京日主催全朝鮮庭球選手權大會午前九時부터京城運動場庭球코ㅡ트

▲軟式野球全鮮大會午前九時부터京城球場

韓人靑年黨一派 抗日團과聯合工作

日滿要人○○코저○○隊派遣 資金을方今融通中

【新京】 상해(上海)에본부를둔한인청년당(韓人靑年黨)은근일반일만(反日滿)운동에맹렬히활약하고잇는바 최근 동당책임자김철(金哲)은상해중국항일단체련합회(上海中國抗日團體聯合會)대표왕모(王某)에게서 동운동의 자금으로 금일만원을제공하야달라고 교섭하고 잇는데 이교섭만 성립되면 당원중에서××대 십수명을선발하야가지고 만주국내에 잠입하야 일만요인(日滿要人)의××과 중요건물을 폭파식힐계획이라는데 이것을탐지한 일만경찰에서는 목하엄중경계중이라한다

咸鏡南道人의 借金이三千萬圓

金融機關의貸出만이

【咸興】 함경남도인이빗을얼마나지고잇는지조사하여보면

東拓	四,三二三,二六九圓
諸銀行	一七,七一三,〇〇〇圓
無盡會社	七三四,三四四圓
各種産業組合	七九,七〇六圓
各漁業組合	五四二,五八九圓
金融組合	六,一四四,三七四圓
合計	二九,五四六,二九一圓

대략이상과 가튼데 함경남도 권인구가 백오십삼만 구천이백사인임으로 매인평균 십구원십구전,도내호수는 이십륙만칠천륙백십삼인바 매호평균 백십원륙십삼전의 부채를 지고잇는 심인바 이상에통게에는 권당포와개인차금업자의 차금액을 가산치안엇슴으로 이것을 통산한다면 이것의배수가 될것이며 조선인,일본인편의 통게는알수업스나 차금의대부분을 조선인이지고잇슴을뿐아니라 조선인 대다수의차금은 파산또는 생활상위협을권케로하고 잇는 말하자면 변상의길이 막연한것으로 융통자금으로 한때한때 돌려쓰는차금과는 성질상판이 한것이여서 차금은곳 재산의감축과 파산을 반증하는것이 되여잇다 저당에 들어간전답과 담보물이 금융기관과 소수(少數)자본가에게 집중축적(集中蓄積)되는반면에서 다수한 무소유(無所有)와 파산이늘어가는것이 농촌 도시를통하야서의 금일조선현상 이어니와비교적빈부(貧富)의 차가 적다든 함경남도지방도 근래급격히집중(集中)과 몰락의 과정을밟고잇다

熙川에豺患

【新義州】 지난이일오후 두시경에 평북희천군희천면여평동(熙川郡熙川面驛坪洞)차응주(車應柱)의처김씨는자긔아들룡성(龍聲)(二)을 겻헤누이고 끈히잠이들엇든바 쌔여보즉 아이가 간곳이업슴으로대소동을이르켜 오든바 지난 십사일에일으러부근산속에서아이의시체를 발견하얏다는데 이것은득대의 소위인듯하다한다

成川三德面서 大鍾乳洞發見

【平壤】 성천군삼덕면대동리(成川郡三德面大洞里)에서대종유동(大鍾乳洞)을발견하엿다 성천읍에서 십리신성천역에서 이십오리상거인 현봉(玄峯)이란 조고마한 산가운데잇는데 탐승에 약사십분간이나 허비할대규모의 종유동이라한다 발서탐승자가 답지하여 동지방은 번화해진다고한다

運炭罷業解決

십구일오후에쌍방타협

【平壤支局十九日午後五時半電話】 루보=사백여명의석탄 운반선부들이 동맹파업을 단행하고 동척광업회사에대하야 네가지 요구조건을 강경히 주장하고잇든바 십구일오후 두시에 이르러 파업단측과 회사측과회견하야 타협한결과모다일을 곳착수하얏다 그러나 목촌(木村)감독과 송(宋)십장두명의 해고(解雇) 요구는 그냥 강경히주장하고잇다

日曜講話

◇彰義門敎會
午前十一時 『웨ㅣ번지를안나五?』 金鎭泰
午後八時 未定 柳約翰

◇向上會館
午後八時 邪不犯正 演士 李智光

◇貞洞敎會
午前十一時 새로운살림 崔在鶴
午後八時 少信者乎何疑也 演士 金錫浩牧師

◇中央敎會
午前十一時 未定 李弘周
午後八時 이마누엘 徐泰源

◇勝洞敎會
午前十一時 現代基督敎의進路 金仁泳
午後三時 聯合禮拜 金益斗
午後八時 未定 朴容羲

◇覺皇寺
午前十一時 實相妙法 金泰洽

最近十五年以來로 作人四十萬戶增加

移出米는늘어도農村은年年疲弊

朝鮮米移出稅問題 (三)

넷날에는 조선사람의 손으로 농사지어 거두운쌀은 거의조선안에서 우리입으로 먹어오든것을 이십년동안에 농사를더만히 지어 오륙백만석의 추수를더하야 일천륙칠백만석의추수를 하여가지고 일년에 한사람압흐로 일곱말이상이나 먹든 식량을너말가량으로 주려가면서 일년에 칠백만석식이나일본에팔게되엿스니 표면으로보면 이십년동안에 조선농가는 쌀장사판이된것갓다 그러나 장사라면리를보아야하는데리익을못보는노릇을해왓다면 그것은개인의형편이면 장사가서틀려서 실패를 한것이라 [illegible]은 장사가안이다 손해를보면서도 눈물흘리며 겨자먹기로 곱흔배를 움켜쥐고 농사를지어가지고 수확된쌀을 일본에 팔지안흘수업서 팔어왓다면 그것은명색만이 쌀을파는것이고 그실은 조선에서일본건너가는쌀을봉하야일본잇는사람들에게로역(勞役)의봉사(奉仕)를하여왓다고볼수잇다

◇ 먹든쌀을 덜먹어가며 농사를더만히지어 더만히 일본에쌀을파는동안 조선농촌은 얼마나버리가되엿나? 다시말하면 이십년동안륙칠백만석의증수를보아칠백만석의쌀을일본에팔어온반면에조선농촌은얼마나흥햇든가피폐하엿는가? 이제총독부조사에의하야농업자의변천상태를 보자(조선총계로 정확한것은대정오년이후부터 소화륙년말까지의 십오년간의것을 가지고 대조해보기로한다) (단위일천호)

	대정오년	소화륙년
	千戶	千戶
농가호수	二,六四一	二,八三九
지주	六六	一〇四
자작농	五三〇	四八八
자작겸소작농	一,〇七三	八五三
소작농	九七一	一,三九三

이와가티 변하엿다 이것을보면 지주는 삼만팔천여호 소작농은 사십이만의천여호가늘엇고 그외의 자작농과 자작겸소작농은 모다 평정히줄고잇다 이리유를다시설명하면 자작농중에서 지주로 올라간사람이잇고 그러치못하면 자작겸소작농으로 떨어지고 또자작겸소작농을하야 근근히지나든 농가는 본래가젓든 농토를 일허버리고 아주소작농을 해먹을수밧게업시 한층떨어젓다는것이다 그러고지주수효가 증가된 리유는 조선사람자작농중에서 지주로된것도 잇겟지만 일본합병이후 돈가진일본사람이만히 조선에건너와 농토를 차지한 사람이만허진 까닭도큰 리유이다, 또소화륙년말현재의 토지소유자 수효를보면

	일본인	조선인
백정보이상	五四八	三六六
오십정보이상	一二七	一,五五五
십정보이상	五,三六六	四四,八八

등이고 일천정보이상의 소지주는 일본인 삼만일천여명에 조선인은 일백이만삼천여명으로 대지주는 일본사람측에만코 소지주는 조선사람측에 만타는 것을 명확히 알어내일수 잇다 이상의 두가지통계수자에 의하야 보면 조선농촌은 이십년동안에 농사는 아무리만히잘짓게되엿다해도 얼마나궁하고피폐하여젓는가를 알수잇다 겸하야 일년에 닐곱말의쌀밥을먹든것을 너말밧게 못먹고그대신으로는 맛업고양분적은만주조(滿洲粟)를사다먹게되니 조선농민은 큰영양불량에 빠저잇다는것을알수잇다

◇ 그러면독자들은 물으리라 조선농민은 농사를 더만히지어가지고 먹지도안코 만히팔어왓는데 왜그처럼 피폐하고궁해젓는가?고 그리유의 근본적문제가 되는것은 농산품을팔어서 긔계로만든일용잡화를 사서 쓴다면 셈이 안된다는데잇다 즉조선쌀을일본서긔계로만든일용잡화와 박구어 가지고는셈이안된다는것은 원리상리론이나 이밧게도 리유가만타 그것을여기재설명하기에는 넘어장황하고 어려운 복잡한 일일뿐더러이긔사에는 그리직접필요가 업슴으로략하기로한다 다시본론에 돌아가 생각하건댄 일본정부와조선총독부에서는 조선에 쌀농사를 만히장려하여왓다 일본의식량이 모잘으니 쌀농사를 지으면유리하다는것을 말하여왓다 그러고 총독부에서는 조선농민의 쌀농사가발달되엿다고 칭찬도만히해왓다 보라! 농사개량이니 산미증식(産米增殖)이니여러가지 방법으로 혹은온정 혹은 강권하야 쌀농사를 장려하야조선농민은 그말대로 밋고쌀농사를만히 지어왓다 그결과아직부족하나마 칠백여만석을 해마다일본에 건너보내게되엿다 그갑으로는 쌀갑슬바더가지고 대부분일본서 건너오는물품과 박구어온것밧게는 업는데 웬일인지 쌀농사를 지어온조선농민은 해마다궁핍만 하여젓다 쌀농사가 셈이안된다고해도 쌀농사를 계속하야 일본에팔지아느면 그나마궁한조선 농민은완전히파산하여 버리게 되여잇다 그런데그만치식민지(植民地)백성으로 수고를바치어가며 쌀농사 지어일본에 보내왓거든 오늘에 일본에 건너가는쌀에는 세금을바더못건너가게 하자는 것은웬일인가?(계속)

學校補缺生募集
泰成高等科一、二、三部、木工科一學年、英語科、初等、中等 二十名 (女子部定員若干)
中央基督敎靑年會
出願期日 八月三十一日試驗九月一日
詳細要照會 京城鍾路二丁目 電光一、四二六

地方駐在員及出張員三百名募集 (但駐在員은地方居住人)
學力如何를不問하고奮鬪努力하시는分을希望합니다 有意之分은二錢切手同封履歷書를郵送하시오規定書를送付함(面會謝絶)
京城西大門電車停留場前 神聖堂本舖

製繩機
最新式階級扱機도特賣
大阪市此花區野田驛前 石鍛農機製作所 電土佐堀八〇六番

商報進呈 品質保証
染料 원료물감
京城府鍾路三丁目七一 德世洋行 電話光化門二八一番 振替京城八四四番

當選淋藥
京城鍾路一丁目 平和堂

朝鮮劇場
八月二十日낮부터(五日間) 特別料金 階上大人七十錢小人四十錢 階下大人四十錢小人三十錢
●日活스타ㅣ와즈·엔드來演 (二日間晝夜) 와즈ㅣ연쓰 實演ㅣ映畵의밤
日活人氣俳優로만編成된아구·다ㅣ스와즈·엔드를朝劇이招聘하야여러분게奉仕하게되엿슴니다 잇지마시고꼭와주세요.
◇同時封切◇ 파라마운트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마음의靑空 10
(二十二日부터) 구락一게ㅣ블主演 普通料金 階上大人五十錢小人三十錢 階下大人三十錢小人二十錢
파라마운트社特作全發聲日本版 上海特急 10
巴里祭 10
次週二十五日부터 妖花마ㅣ른히데이도리히主演 制服의處女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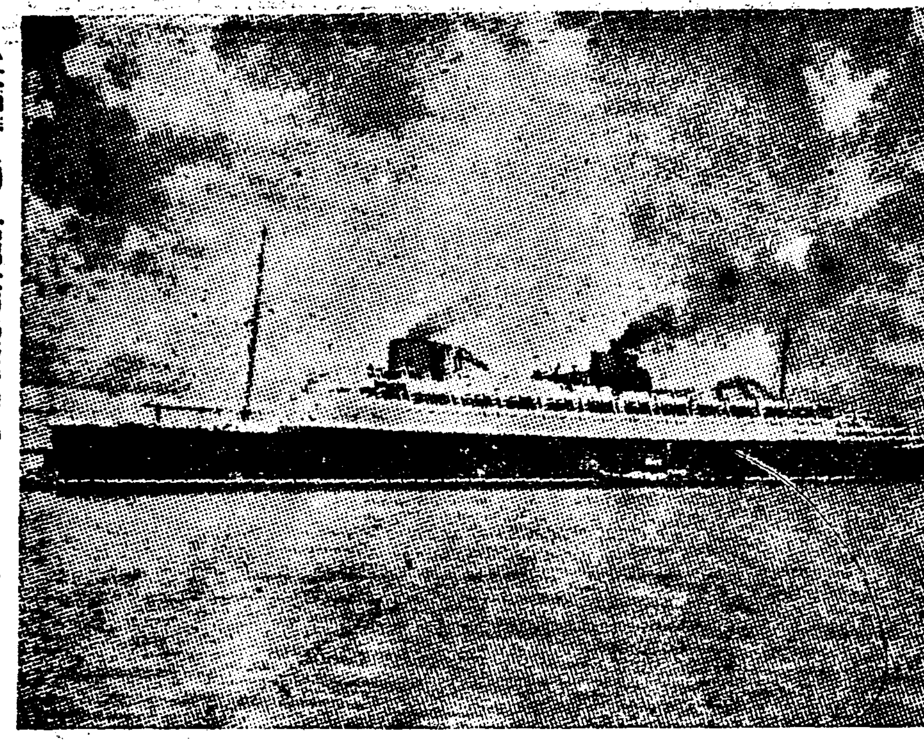
團成社
◇八月十九日낮부터 每日晝夜二回 階上二十錢階下十錢均一
◇파라마운트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시렵스ㅣ아주머니 全九卷 알프렛스테이氏監督 잠스 락크스氏主演
◇파라마운트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라듸오는웃는다 全十卷 프랭크 러트링氏監督 스푸와드아잉氏主演
堂堂한本社의陣容 靑光、鍊路、靑春의血潮가타올는다

優美館
八月十七日(木曜)부터納涼公開週間!
獨逸후이바스會社超特作 鳥人루지아스·노일맨치니氏決死的猛演 冒險王 全七卷
RKO會社大提供 監督 스리아오마氏 助演 아그네스비라그로ㅣ氏 速力時代 全七卷
F·B·O社超特作大映畵 猛優후렛드톰손氏大飛躍! 名馬天來 全七卷 助演 에드나마호이 白銀王

第一劇場
八月十八日낮부터大公開 每日二回 낫一時 밤八時 開映
喜劇 夜의女 全七卷
狼의奇蹟 全十卷

中央館
特別出演 嵐德三郎 山を守る兄弟
後の生きぬ仲
突飛大將戀の初陣

有望な新職業 二三十円の資本から誰にも出來る
責任指導 中野米國理學士
月二百圓의利益確信
不況時의職業으로서最適 前代議士 奧村千藏
小資金新職으로서의粉末石鹼의製造
好期는只今!!
實驗原料無代進呈 大特典잇슴
中央化學工業研究所 名古屋市東區西裏



▲大西洋上에 君臨한獨逸優秀船『브레-멘』號 一九二九年의竣工으로서 全長八、九八七呎重量四九、六五六噸大西洋橫斷平均速力時速二七、九一浬의記錄保持者

船舶의起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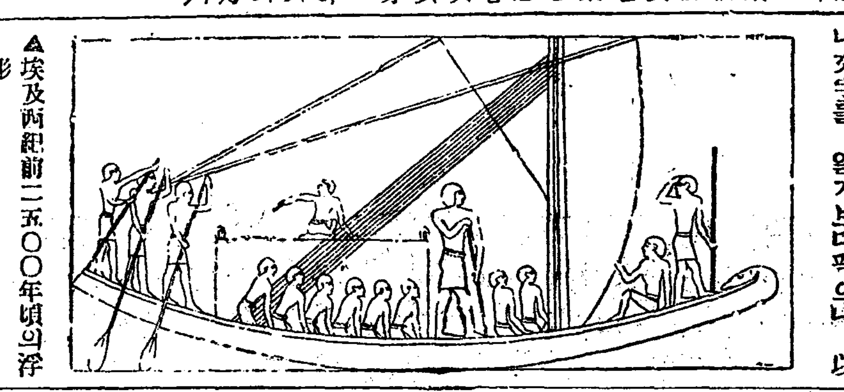
木船創製의過程

人類에게 日常的으로 가장 有用하게 利用되는物件일사록 그起原에 關하야서는넘우나遼遠하기때문에 正確한記錄을차자볼수업는것이다

이와 맛찬가지로 船舶의始源에對하야도 世界各國에 信憑할만한 記錄이업서 有史前時代의 事實은全然不可解의것이다 그러나 船舶이 發達된經路를 大槪 推測하여보면太古의人類가 水面에 浮動하는物體를보고 비로서 舟揖의必用을 깨달어 知識의 進步됨을따라 最初에는 草木가튼것을 結束하야 木筏가티만들엇고그다음에는 巨大한樹幹을穿鑿하야 木舟를製作하엿스며그리고 次次로 木板을接着케하야 船舶을만들엇스며나아가서는木釘或은 鐵釘을利用하야서 內部에 助骨을 加入케하야乃終에는 完全한木船을建造하게된것이아닌가하고생각된다

▲埃及古墳에서發掘한舟揖紋畵가잇는土甁 西紀前六〇〇—五〇世紀의物件

何如間 現代에잇서서도三歎을 不禁할만큼 文化的으로相當한發展을보앗든 古代埃及에잇서서는『人間이 처음으로船舶을 使用하엿다』는 事實의記錄이 업슴을보아서 아마도人類가 舟揖을創製한것은 繪畫나文字를 알기보다퍽으나 以前의일인것도갓다



▲埃及西紀前二五〇〇年頃의浮彫

『나일』地方에서 처음으로舟揖의形態를가지고出現된것은大槪『파피라스』等의 草類를結束한것이라고한다 埃及의古墳에서 發掘된 土甁等의 紋狀과壁畵가튼것을보면『파피라스』가튼것으로맨든것가튼木舟形紋을發見할수잇는것이니 이것이漸次로船舶의形狀을갓추어木造의船舶의起源이生起하엿다고 想像된다 더욱히 現代에도中央亞弗利加의『챠드』湖에는『파피라스·카누』라하고 南米『페루-』의『치치카카』湖에는『리-드·카누』라고하는草類를 結束한舟揖이잇서 古代의面影을 殘存하고잇는것이다

一般으로 歐羅巴의 船舶의 發達에 關하야는 地中海에서 生起한 埃及系의것과 北海에서 顯現한北歐系의 二種의源泉이잇다고한다 數年前 埃及에서 發掘된『니-ㄹ舟』는 紀元前二八五〇年頃의 것이라고 謂稱하는데 現存한船舶으로서는 最古의것이며 長이三三呎인데 龍骨과 助骨이업스며外板接着에는 釘類를使用치안코 鳩尾形의 木栓을使用하엿다고한다 이點은北歐系의것과는顯著히相違한것이다北歐系의것도 古代의史實은알수업는일이나狂風荒波가甚한北海이니만큼 그形狀도거츨은波浪에對한耐久力이豐富하도록建造되엿스며櫓櫂等을그리使用치안코 純全히布帆만을使用한것이라고推想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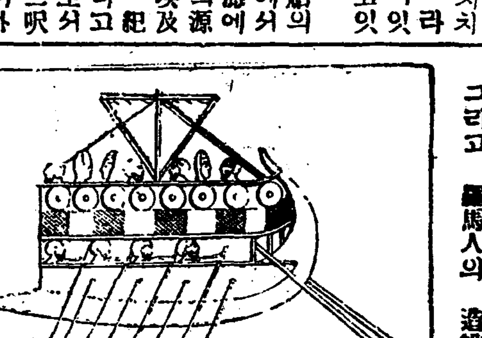
그리고七八世紀頃에 歐洲를 자조侵略한『놀맨』은航海에能하며前年에諾威에서『바이킹』의墓에서發掘된船舶은船首와船尾가 거의同形이며또完全한肋骨과助骨이잇서埃及系와는相違한것이잇다고한다

그리고 船舶을櫓櫂로서 運用하는것은 亦是『나일』地方에서 創始한것이라고 하는데埃及에서 發掘된 第三王朝時代의古墳에서發見된古船圖와 그後古墳과 古寺等에彫刻된繪畫等에依하야當時의 櫓櫂쓰는方法도窺知할수잇는것이다

地中海에서는 風勢도極히靜穩하고 波浪도甚치안어 主로櫓櫂로서 航海의 用具를삼은듯하며 따라櫓櫂의配置가 造船의主要問題이엇든것싶다

最初에는 櫓櫂의配置도一段이엇든것이 漸次로櫓櫂의數를 增加하야 二段三段으로 配置케되엿다

紀元前 三世紀時代에는 船形도漸漸 大型式으로되고櫓櫂도十六段이나 되는것이잇섯다고한다



▲『아시리아』의彫刻에나타난西紀前七〇〇年頃의『훼니카』의軍艦

그리고 羅馬人의 造船한것은現今의木船과가티 突出한龍骨을使用하야 助骨을 建架하야外板을 接着케하고 外板의間隙에는 浸水를防禦하기爲하야 麻類를充塡하엿다고하니 얼마나 當時에도 造船術이發達되엿든가를엿볼수잇다

天然洞人

汽船의發達過程

外車汽船의發明에서 螺旋推進機時代까지

小規模의 帆船時代로부터 最初로 機械力을 利用하야 船舶을 움즉이게한것은 西班牙人『뿌라스코·다·가레-』라는사람으로서 二百噸의 荷物을積載할수잇는 外車汽船을『발세로나』에서 建造한 記錄이잇다는데 이것은 一五四三年의 일이라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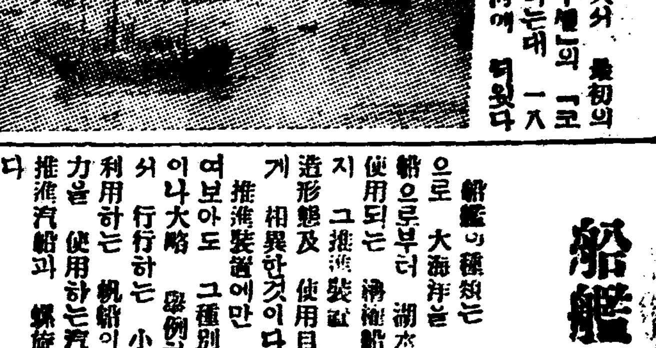
그後 十八世紀 初葉에잇서서는 英國 佛國 米國에서는 各各 蒸汽力을 船舶의 推進力에 利用한일이잇스나、實用上 蒸汽船이라고 稱할만한것이 最初로 使用되기는 一七八七年에米國의『퀄리멜퓌야』에서『쫀·휫치』라는사람이『떼라웨야』河를 航行하기爲하야 外車汽船을 建造한것이라고한다

그리고 英國에서는 一八〇一年『단다스』卿이『윌람·시밍톤』으로하여금 運河에서 使用할船舶을 建造케하엿는데 이것이 有名한『샤롯트·단다스』號라고한다 그리고 翌年에는『크라이드』運河에서 두隻의外車汽船으로 約三『노트』의 速力을내엇다한다

그런데 蒸汽船發明家라고하는 저有名한『로버-트·풀톤』은『클레몬트』號란 外車汽船을『하드손』河에서 띄운것은一八〇七年의일이라고하는데 嚴正한意味에서는『풀톤』은 汽船의發明者라고는 할수업다고한다 그는 오히려早부터 蒸汽船의硏究者로서 一七九三年에 佛國『세-누』河에서 最初의 試驗을하야 失敗하고 그後『미신톤』의『샤롯트·단다스』號를 見學하고『풀·휫치』의方法을 採用하야『크리몬드』號를 建造하게되엿든것이라고한다

何如間 當時에잇서『크라-몬드』號는 紐育과『알바니-』間에 旅客運送에 使用되여非常한人氣를 振作케하엿다고한다

그리고 英國에잇서 最初의旅客汽船은『헨리-벨』의『코멧트』號라는것이라는데 一八一二年『크라이드』河에 띄웟다



▲一八〇七年에『로버-트·풀톤』이『하드손』河에띄웟든外車汽船『크라몬드』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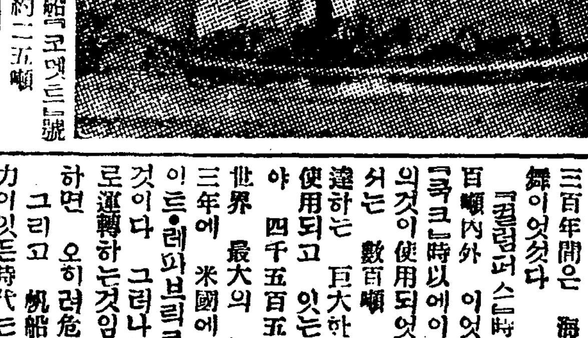
이것은 비록 小形의汽船이나 歷史上에 有名한것이라고한다

이리하야 汽船은 河川航行에서 大洋航海에로 進展되여 一八一九年에는 大西洋을 橫斷하게되엿다고하며 그의 第一船은『사반나』號라고하는데 이것은 純全한 蒸汽만으로航走한것이아니라 風勢가조흘때는 돗(帆)을利用하엿다고한다

그리고 一八三六年에는『로얄·윌람』號가『퀘벡크』에서建造되여 비로소 純全히 蒸汽力만으로서 大西洋을 橫斷하엿다고한다

그런데 이外車蒸汽船은 河川과가티 風浪이 弱한곳에서는 아모支障이 업고 航行의 成績이 매우 조흐나 海洋의 荒한 波浪에 對하야는 極히 能率이 低下됨으로 일즉부터 螺旋推進機와 噴射推進機가硏究되여왓다고한다

이 螺旋推進機로서 처음으로 成功한것은 一八三九年에 英國『프랜시스·스미스』라는사람이『알키메데스』號라는 小船으로『템스』河에서 八『노트』半의 速力을 내인것이라고한다



▲英國最初의旅客船『코메트』號 全長四〇呎重量約二五噸

그리고 金屬類로서 船舶을 建造한것은 十八世紀에도 잇섯지만 一般으로 鋼鐵을 造船材料로한것은 一八二一年의 일이며『아론·만비』號라는 鐵製外車汽船이 建造되여 英佛海峽을 橫斷하엿다고한다

其後螺旋推進機는 漸次로改良을加하게되여 大洋航行에잇서서 相當한 效果를 收得케되여 發明當時에 比하야 現今은 實로 一新의紀元을 짓게되엿다하며 今日의 優秀한 汽船도 鋼鐵製 螺旋推進機船의 域을 離脫치 못한것이라고 한다

李永友

船艦도各樣各態

◇頗多한그의種類◇

船艦의 種類는 實로頗多한것으로 大海洋을 航行하는大汽船으로부터 湖水나 河川에서 使用되는 小汽艇에 이르기까지 그推進裝置 造船材料 構造形態及 使用目的에依하야크게 相異한것이다

推進裝置에만 因한分類를하여보아도 그種別이 無數한것이나大略 擧例하면 櫓櫂로서 行行하는 小舟와 風勢를 利用하는 帆船이잇스며 機械力을 使用하는汽船에는 外車推進汽船과 螺旋推進機船이잇다

外車推進汽船은 實로汽船으로서의 原始形態로서 蒸氣力에依하야 水車가튼것을 船艦兩側에서 廻轉케하야 進行케하는것이며 螺旋推進機船은今日의 船艦界의 中心이되여잇는것으로 水中에서『프로페라』를廻轉케하야 船艦을推進케하는것이다

이螺旋推進機도 漸次로 發達되여서 그機能이卓越하게되엿스며 그數로서 單螺旋 雙螺旋 三螺旋 四螺旋汽船으로區別된다

그리고 一方 汽船의 機關에 依하야도 往復動汽機 內燃機關『터-빙』動汽推進船等이잇다

그리고 造船材料에依하면 木船이잇스며木鐵交造船 鐵船 鋼船『콩크리-드』船等이잇는데 木船에도 單純히巨大한樹幹을 穿鑿한小舟로부터 龍骨 肋骨 外板內板은 全部木材로한 大型의船舶에 이르기까지 그數도 不少한것이다

그리고 木鐵交造船은 龍骨船首尾 內外板等은 木材를 使用하엿고 助骨及梁材等은 鐵材를 使用한것이며 鐵船은 文字그대로 鐵材로서 建造한船艦이다 또 鋼船이라함은 亦是 鋼鐵을 材料로한 船艦인데 現在의 大部分의 船舶과軍艦은 모다 이種類이다 다음『콩크리-드』船이라는것은歐洲大戰中에 出現한것으로서鐵材의缺乏으로서 鐵筋『콩크리-드』로서 造船한것이나 現今은 發展이업시 中絶되여잇다

▲北氷洋과南氷洋가튼氷海를航進하는 碎氷船

다음에 使用目的에依한 種別이 가장許多할것이며 이것으로因하야 推進裝置 造船材料 構造等이 制限을 밧게되며 各色各種의 形態를가지게되는것이다

엇잿든 그種類는 가장數多한것으로 旅客運送을 目的한 客船 貨物을積載하야 海外貿易에 從事하는 貨物船 그리고 貨客混合船 移民을目的한 移民船 最近內燃機使用의 隆盛과가티 油類運搬이 必要케되여 이에適用케한 油槽船 漁船 雜船等이잇스며 國防을爲한 軍艦도잇다

그러나 船艦의 種類는 이에 그치지안이한다 그形態에依하야 客船에도 米國의『레바이아산』號와가치 總噸數五九、九五七噸 全長九五〇呎 速力二四『노트』이고 旅客定員三、四〇〇名以外 乘組員一、一八三名을 收容하는 巨大한것도잇스며 速力으로 第一이라하는 時速平均二八『노트』로 航進하는 獨逸의『브레-멘』가튼것도잇고 連絡船 遊覽船等比較的小型의것도잇다 貨物船도 亦是 이와同一하야 土運船 運送船 汽車運送船等이잇스며 漁船에도『트로-ㄹ』漁船 捕鯨船 蟹工船等의數가만흐며 軍艦에도 巡洋艦 戰鬪艦 航空母艦 驅逐艦 偵察艦 潛水艇等 多數한種別이잇는것은一般이悉知하는바이며 以上外에 碎氷船 救助船 測量船 工作船 海底電信敷設船 探險船 燈臺巡視船 燈臺의代用이되는 燈船等이잇서 實로그數는枚擧할수업스리만큼 形形色色의類別이잇는것이다

朱一光

海上의 SOS

航洋中難破船의 危難信號와救助

船舶이 大洋을 航行할째에 海圖와 羅針盤等으로 海上에 想定한 航路를 進行하며 安定計와는 器械를備置하야 自身의安定度를 悉知토록하여잇다

그리고 航行中에 서로衝突을 避하기爲하야 都市의交通規則과가티『海上衝突豫防法』이란 規定을設定하아잇다

그리하야 夜間에는各種의船燈으로서 信號하게되여잇스며 霞霧가濃厚할째와 降雪이甚할째나 또는 暴雨中에잇서서도 鐘을치거나 汽笛을불어서 彼此에相對方에게 自身의存在를 告하는것이다

그리고 音이 水中에서 傳達되는速度는 空氣中에서보다 四倍以上으로 速함으로 이것을 利用하야 他船의 諸機關에서 울어나는 水中音을 感得하는 敏感의聽音機를 備置하얏슬뿐만안이라 相對方에서 아모音도 發치안는 暗礁와氷山가튼 障碍物을 避하기爲하야 이便에서 發한音의 反射音을 感取하야 그의存在位置를 想定할수잇는 細密한裝置를 準備하여잇는것이다

이러케 深甚한 注意를 거듭하지안어도 時로 坐礁되기도하며 서로 衝突도되여 不意의 災難에 遭遇하게된다 不幸히도 이러한遭難을 當하게되는때에는 救急의信號를 發하게되는데 無電의裝置가잇는船舶에서는 一九一二年『倫敦萬國無線電信會議』에서 非常時에救助를 求하는汽船이나 飛行船等에서 使用케하기爲하야 制定한 SOS의 危難信號와 同時에 自身이處한海上의 位置及難破의 狀況等을可能한데外지 詳細히 打電하야 受信

裝置가이는곳에는 이[illegible] 信되며 危急을 通信하며[illegible]하며 無電受信處에 萬若SOS의信號가着信되는境遇에는 只今外지의送中의 無電을 中止하야 救急을 請하는 送電의 電波를 混亂식히지 안토록하는 規定이다

그런데 이 SOS 라는것은 Save Our Ship (或은Souls) 라는意味라고하나 이것은 略號가안이고하나個의信號인것이다

그리고 直接에 隣近海上의 他船이나 陸上에 救助를願할時는 晝間에는每一分을 隔하야 空砲發砲하거나 또는무엇이든지 爆發케하며 一方信號旗N과C의 二旗로서所謂NC難船信號를하야 救助를請한다 或은 四角旗幅下에 球體든가 이와類似한 物件을 揭揚하기도하며 또는 銃을 打하거나 汽笛을 間斷업시부는것도 信號의 一方法이다

그리고 夜間에는 油桶이나『탈랑크』가튼것에 불을질러 그것의燃燒되는 火焰으로 信號하거나또는 大型의爆花가튼『火箭』이라는것과 近二百米이나 놉히올라 爆發되는榴彈等이使用된다

萬若船行中의 船舶이 難破船을 發見하엿슬때에는 自船의 危險이업는限 人命을救命할義務가잇스며 陸上에서 이를發見한者도 亦是 그러한義務가 잇는것이다

難破船이 發見되엿슬때에는 救命艇은 出動케한다 이에는 救命索發射裝置가잇스며 水中作業時에 着用케하는浮袋로 救命胴衣의 準備가잇다 그리하야 水中에서 浮沈하고잇는難破船員에게는 浮環이나 救命筏이란 極히輕한木材로서만든 網形의物件을 던저이에依支하도록하야 徐徐히救助를기대리도록한다 救命索이라는것은 直徑이 一分五厘假量되는 麻製纜子로서 이것을 難破船에投架케하야 彼我의 連絡을 取토록하는것인데 救助船側一端에는 太長한『로-프』가 結着되여잇서 救側에서는 이것을감아들에 그太長한로-프를 仲介로하야 强固한 細橋가架設된다 이리하야이것을通하야서 人命其他를 救出하게된다

그리고 夜間救助에잇서서는 燈火의 不充分으로 只今外지 莫大한困難을늣기엇스나 近年에新案된發光 落下傘은實로 夜救助作業에 必須物이되여잇다 이것은 救助를엇기爲하야 難破船側에서 이의專用『피스톨』로發射하면 二百尺이나솟히올라 그光度는三萬燭光에達하며 二十五浬의 遠外에서도 認知할수잇는것이라한다 더욱히 近日에는 飛行機로 부터『로-프』를 下架하야 救助하는것이 試驗되엿스며無線의 操縱과『로봇트』利用의救難船도 硏究中에잇서 不遠間 이方面에도新向路가啓示될것이다

(寫眞은 發火落下傘)

朴晳民

大洋을舞臺삼엇든 帆◇船◇漫◇談

過去의帆船로맨스

航海帆船의 黃金時代는 實로 十五六世紀의 世界地理上發見時代로부터 十九世紀末外지일것이다 一五二二年에 西班牙의『마게란』이란사람이 世界一週의 試驗을 成功한以後 一八七〇年에 이르기까지 約三百年間은 海洋은 帆船의獨舞臺이엇섯다

『크림퍼스』時代의帆船은不過百噸內外 이엇스나 그後英國의『쿡크』時以에이르러 四五百噸의것이使用되엿고 近間에잇서서는 數百噸 乃至 數千噸에 達하는 巨大한帆船이 航海에 使用되고 잇는것이다 그리하야 世界 最大의 帆船인 一八五三年에 米國에서製造된『그레이트·레퍼브릭크』號가 생기게된것이다 그러나 帆船은 人力으로 運轉하는것임으로 넘우過大하면 오히려危險이 잇다고한다

그리고 帆船으로서 가장速力이잇든時代는 十九世紀中葉으로서英國의『치-·그립퍼』時代와米國의『칼포-드니아·그립퍼-』時代라고한다

엇쨋든 海洋을滑走하는帆船은遠航할때그의速力競爭은 恰似히 國際『스포-츠』의感이잇서 貿易上의必要以上으로 各國民間의競爭心과 興味를惹起케하는것이다

▲一八六〇年에 南米의『케-프·혼』을돌아航行하는 米國의快速船『프라잉·크라우드』號가 南半球의偏西風帶에서 時速十九『노트』를내여航走하는雄姿

이러한것으로 가장興味잇든 事實은 一八六六年에 中國福州에서新茶를滿載하고 出發하야英國倫敦을 目標로航行하든『테-핀』號와『에리엘』號와『셔리카』號 이엿다고한다 當時의 倫敦에잇서서의 新茶時勢는可驚할만한 高價로賣買되엿슴으로 前記의三隻의貿易의 帆船은 一刻을爭先하야 競爭을하엿다고한다 出帆日에도 서로 自船以外의他船을 發見하지못하고 各各自意의航路를 擇하여서九十八日間의航海後英國海峽에 當到하엿슴에 三隻이各己 自船이 先着이라고 確信하엿는데 水平線을 바라보니『테-핀』號와『에리엘』號의 二隻은 거이雁行하여잇고조곰떠러저서『셔카』號가 亦是 白波를헤치고 驀進하고잇섯다한다 結局에잇서서는『테-핀』號가先着되엿지만 近百日의航海에잇서 더욱히自熱的競爭에잇서一着과三着의差와 不過數時間이엇다는데는 噫然치안홀수업는것이엇다고한다

四檣『바-크』型帆船『리쉬리유』號

그리고速度로서 또有名한것은米國『칼폴니아』의 金鑛이發見되엿슴에 紐育에서桑港外지 南米의『케-프·혼』을돌아航行하는것을『프라잉·크라우드』號가一八六〇年에一日間에三七四浬를快走하엿스며 그後『라이트닝』號가 英國에서米國으로의 歸途에 一日間四三六浬의 驚異的記錄을내인것이라고한다

그리고『레드·자켓드』號는一八五四年에 滿十三日一時間에 大西洋橫斷의記錄을지엇고 其後八十年을經過한今日에잇서서는『오이루파』號의四日十七時間의快速記錄을지엇다고한다

崔錫浩

船舶의今昔

×

一八一九年 五月二十二日『사반나』港을出帆한 世界最初의汽船인『사반나』號가 同年六月十九日大西洋을 橫斷하야英國『아일랜드』沿岸에 入港하엿슬때에英國稅官吏가 이를發見하고船舶에 火災가일어난것으로誤認하야 一時大騷動을 하엿다니當時로서는 그容或無怪한일이엇다

×

汽船의發達은 大西洋橫斷에서 始作된셈이다 外車汽船『사반나』號가 一八一九年에 最初로 二十九日十一時間으로서大西洋橫斷을한것을 비롯하야 一八三六年에는『로-얄·윌리암』號가 中途에서 石炭補給때문에『퀘벡크』에서 倫敦外지 三十九日을要하엿고 그다음英國의 外車汽船『시리안스』號가『퀸스타운』에서 紐育外지十七日間에突破 一八五四年에는『레드·쟈켓드』號가 十三日一時間에悠悠히橫斷한以來 大西洋橫斷競爭時代가 現出하엿스며現今은『오이로-파』號의 四日十七時의 記錄을짓게外지되엿다

×

一八五九年에『그레-트·이-스탄』號가 建造되엿다 全長六七九呎 幅八三呎 重量一八、九一四噸 二個의大形外車와双螺旋推進機가잇서 平均速度十三『노트』이어서 當時에잇서서는驚異的巨船이라고 하엿든데 現今에는『레바이아산』號와가튼 全長九五〇呎 幅一〇〇呎 重量五九、九五七噸 時速平均二四『노트』의 旅客船도 凌駕한新巨船이 續續建造中이다

人形의집을나와서

〔〈노라〉의後日譚〕

【78】 蔡萬植作 吉鎭燮畵

백색노예 (四)

「그러케 되여도 할수업지 그러치만 그러케 꼭 되란 법은 어데잇나요? 팔자에 맛기지요」

한참만에 성희의 대답이들 니어왓다

「그러타면 나도 더할말이 업다 나도 네가 고생이나 덜하고 호분이나 조앗스면 편안심이 되겟다」

그담에는 문 여닷는 소리가두어번들니더니아주잠잠하다

사흘이지낫다 노-라가 아츰에 자고 일어나 세수를하느라니까 안채 노인이 새옷을갈어닙고나와작별인사를한다

「안녕히 게시우 나는 시골로 가우」

노-라는 속으로 빨니는서둔다 십헛다

「어씨 그러케 갑작히 내려가세요?」

「네 그케…… 각가우니까 종종 오지요」

이러케 심상히 말은 하나 섭섭해하는눈치가완연히보인다

「커 새로오신이랑 노인이랑 안녕히 게시우 오시자 마자 내가 이러케 떠나서 섭섭허우」

「네 안녕히 가십시요」

「안녕히 가시우」

노-라가 보니 중문박게는 용식이와 성희가 나서서잇고 오라버니듯십흔 허수룩한 양복입은 사람이 도라서서잇다 먼발취로 보아도 성희의 눈에는 충혈이 되고 눈갓이부싯부싯하다

노-라는 가서 붓들고 위로를 하여주고십기도하고 야지어서나불하주기도하고십헛다

이튼날─일요일이다

세식구가 안저서 조반을 먹느라니까 속달우편 하나가 정원이에게로 왓다

정원이는 밥숫갈을노코 편지를 뜨더보다가 골을 내어 핵 내던진다

「니선생님한테서 왓지?」

마나님은 편지를 집어 알기나 하는듯이 것봉을 이리커커 뒤뒤보며 뭇는다

「그러타우」

「머래니?」

「오늘 인천가자구 약속을 해노코─ 인제와서 못가다구그래! 몸편이 돌밧사 정은무슨놈의 돌밧사 건이야」

엽해잇는 노-라가 미안할 만큼 그는 골이나가지고 두덜거린다

「일이 잇스니까 그러치 오늘못가면 담에 가렴…… 어서 밥이나 먹어라」

「실혀요…… 어머니 참 혜경 아즈머니더려 나 약혼 햇다구 그랫수?」

「응」

「응이머야! 누구하구?」

「니선생하구……」

「참! 난 어머니때문에 죽겟서!……굴세어써자구」

정원이는 금방 울듯하다

그는 밥상에서 아주 물너안저 속달편지를 박박 찟는다

「그랫스면 엇때하니?……약혼햇거나 일반인데……」

「머가 약혼한거나 일반이야! 누가 그따우 룸펜에 바보하구 약혼을해?」

인제는마나님도마조성이낫다

「데놈의 에미나이 하는소리바라 누구서 그러케 버릇업시 말한다든?」

「하문 어써? 그따우 바보……あんな男は 女の出來そこないた(그런 사내는 게집이 될려다 사내로 된 결)」

이러케 해노코는 제사서 급허서 하하 우서바린다

노-라도 어이가업서서 따러우섯다 노-라가 보기에는 소위 말광냥이라는 말도 표현하기는 말의 의미가 되려 약한것갓햇다 말광냥이에 히스테리를 다분히가미한것이다

「데년이 밋첫서!」

「어머니는 망녕나구 호호 …… 그러니까 시신을 전즉 보내지!」

「그러니까니 니선생하고결혼하란박게」

「좀 더두고 봐서」

「보기는 무얼 보아…… 나히 스물다섯이나 먹어가지구」

「스물다섯인가! 넷이지」

「그러지말구 올해에 성비를 하렴아…… 사람잘나고 학문잇고 무에 부족해서그래?」

「돈이잇스면、맷푼이나 잇서요 그까짓 변한 삼백석 하는것? 일년에 시세가조아야 삼천원」

「삼천원이 적은돈이가? 커는 삼백원도 업스면서!」

「그래두 인제봐요」

郡內三十餘書堂 全部에廢鎖命令

배울곳일흔무산아동들울며방황 龜城郡當局의此處事

【新市】지난 칠월 일일부로 귀성(龜城)군당국에서는 군내 삼십여개소의 무산아동을 위하여 설치한 서당전부에게 폐쇄를 명하엿다고하며 서당에서 교육되든 무산아동들은 배울곳업서 사방에서 울며불며 방황하고 잇다고한다

鄕校舍建築費로 五百圓을寄呈 安大淳氏特志

【陰城】충북음성군원남면주봉리(陰城郡遠南面周鳳里)안대순(安大淳)(六三)씨는 당지 명륜향교 직원에 취임한이래 향교사개축을 절절이 늣기여 근일 건축공사를 시작케하는동시에 솔선하여 자기가오백원을 희사하여 건축비에 충당케한 사실에 일반은 칭송이 자자하다 한다

貧寒한學生의 學費를供給 風桂氏特志

【淸安】충북괴산군증평면증평리(槐山郡曾坪面曾坪里)에거주하는 최봉주(崔鳳桂)(四五)씨는 그이웃에사는황룡연(黃龍淵)씨의장남갑수(甲秀)(一四)가 증안공립보통학교 륙학년 재학중이든바 생활난으로 보교나마 맛치지못하고 중도퇴학함을 앗처러이생각하야 갑수의 학비대여줄을자칭하엿다는데 듯는사람마다최봉주씨의동정을칭찬한다고한다

讀者慰安 童劇童謠會

【禮山】지난십오십륙양일간 독자를 위안하기위하야 본보례산지국주최로 경성삼판(三坂秀英學院)소년소녀십륙명을 초대하야 례산유치원구내에서 동극동요(童劇童謠)를 개최한바 일반독자 유지제씨관람객이 이백여명에 달하엿는데 관람객으로하야금 만흔 흥미와 깁흔인상을주엇다

市民慰安 納涼音樂 盛況으로終幕

【羅州】본보라주지국에서는 독자및시민 위안을 목표로호남각지방에서 남녀신구악사 를재울초청하여 신구련합납량 음악대회를 개최한다함은 이미 보도한바어니와 예정을박구어 지난십오일부터량일간 라주유치원 그라운드 에임시극장을 가설하고 막을열게되엿는데 량일간 다ー대 성황을 이루어 입장한 인원은 근천명에달 하엿스며 출연한 악사와 의연금은다음과갓다

◇樂士 李賢祥(全州) 河吉淡(光州) 劉弄珠(光州) 曹夢實(光州) 崔玉山(長興) 金錦珠(木浦) 黃桂仙(羅州)外數

◇義捐金 ▲金五圓 東亞日報羅州支局 ▲金一封 丁基哲 金鍾彥 梁癸元 崔京彬 羅州理 李琉 趙東鎬 金永允 梁任 申龍斗 丁宇鉉 李三洙 李昌午 無名氏(各通)

餓死線에선百餘 災民의몸부림

大擧、道廳에陳情하라다 警察制止로鎭靜

【潭陽】미증유의폭풍호우의 피해로 전남도영산강상류 담양군수북면 개동리계방의 결괴로 인하야 연안일대의 농작물은전멸을당하고 그우에 가옥류실이 너머나 다수여서 먹으랴해도밥이업고 살랴해도집이업는 이재민의 곤궁과참상은 그극에달하야 완연생지옥을 이루어생불여사에처한 개동리(開東里) 이재민백수십명은 이달팔일에 광주에잇는 전남도에쇄도하야이재민구제를진정코저대거광주가도로향하든중 이급보를 드른관주경찰의 제지한바되어 일단귀환하엿스나 형세는 아즉도불온하다한다

兩面有志 救濟陳情 道廳態度注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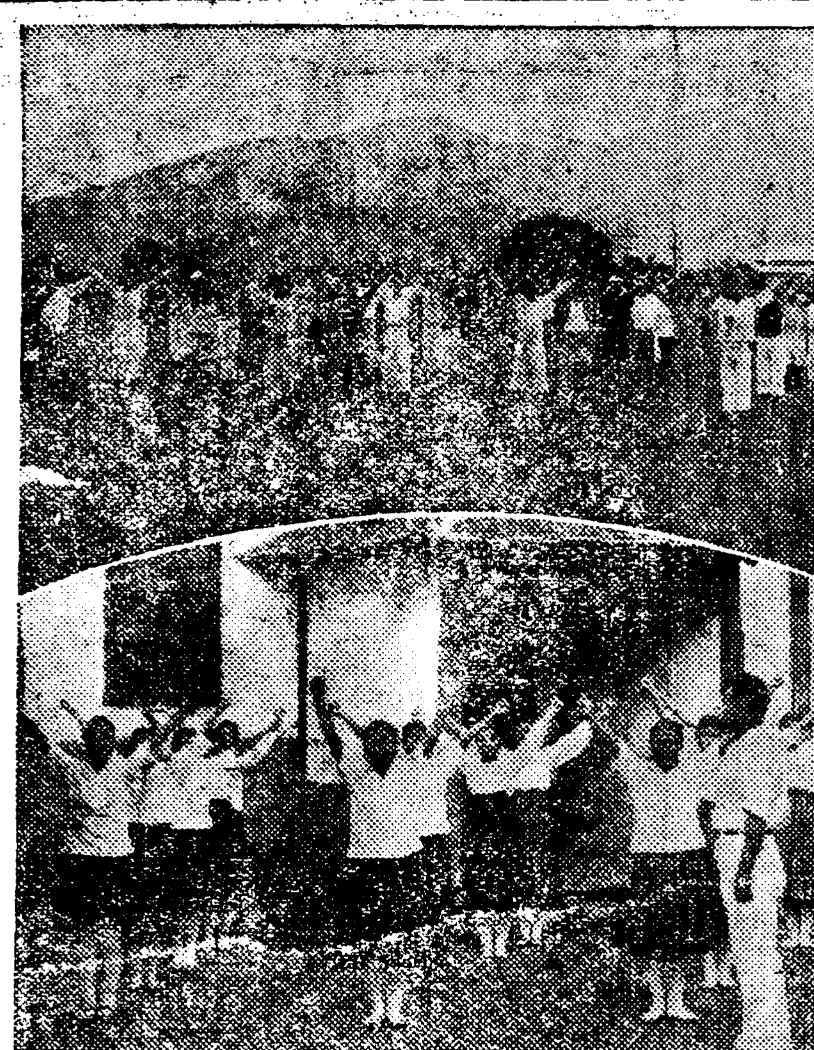
【潭陽】전남도청에 대거 강소(强訴)하랴든 담양군 수북면 개동리(永北面開東里) 이재민의별동대는 지난구일 아침에담양군대전면장 이병준(大田面長李秉俊)수북면장 고종규(永北面長高宗奎)면유지삼천방구(森田方久)외팔백의진정원은 전남도청을방문하고 결괴된 제방의 즉시수축공사할것과 아울너 이재민의 비참한참상을 호소하야 속히 구제방법을 강구하여달라 고하엿든바 도당국은 이에량해하야 다소동정잇는 회답이잇섯다는바 금후도당국의 태도가주목처이라한다

醴泉水害救濟 妓生演奏大會

本社醴泉支局主催 東亞、中央兩支局後援

【醴泉】지난사일폭풍우로말미암아 례천군상리면 고항동소사현(上里面古項洞小沙峴)주민이십오명의 사자와 중경상자의네명을내는동시에 전답과 가옥의피해도 적지안타함은 각신문지상을통하야 널리다 아는바어니와 권리피해자는 원래빈한한가정에서 살길을차자모여든 화전민의 생활정도이니만치 불상한처지에잇는 그들도 이와가튼 불의의참변을당하고보니 그들의생로가 막연하다기보다 목석에도대일곳이업는 그들은 거지로 화할수밧게업는 경우이라 이에 본보례천지국에서는 죽은자는 불가부생이나 불행중다행히도 살아잇는 유족의장래를위하야얼마의 동정금이라도 모아서 구제비에 보태줄가하는 의미에서 동아중앙양지국의 후원을어더 오는 이십여일부터 그익일까지 량일간 시내 남본정 권번(南本町券番)에서 레천수해구제 기생연주회를 열게되엿다는데 일반은 환난상구의미풍과 동족애 발로로 동정을 바란다한다 그리고 입장료는대인이십전 부인 십오전 소아십전 이라하며 금번리재민을위하야 무료로출연하여줄 기생은아래와갓다고한다

金柳色 李春桃 蘭彩紅 河中月 金春史 金一眞紅 尹玉珠 金玉蘭 趙春桃 許海中月 朱彩仙 朴山月 高春鶯 孫春子 具彩玉 金景蘭



◇寫眞……保健體操講習光景 【上】男子部員 【下】女子部員(本社瑞興支局主催)

阿片密輸團檢擧

奉天에서密輸入하여다 平壤、成川方面에서放賣

【平壤】만주봉천에서 아편을밀수하다가 잡힌이인조 밀수단이 평양서원에게 체포되엿다 범인은 부내선암리(鮮岩里) 리근욱(李根郁)(三三) 부내 상수리(上需里)우정룡(禹鼎龍)(四○)의 두명으로 금년삼월상순봉천(奉天)에서모히-ㄴ 수입한것을 비롯하여 전후칠회에 막대한수량을밀수입하여다가 성천(成川)과평양방면에서밀매하든것이 판명되어 취조를밧게되엿다고한다

【新興】함남 신흥군(新興郡)에 거주하던 동군 상원천면흥봉리(上元川面興鳳里) 윤태수(尹泰洙)(二六)씨에게 … 씨(氏)(二一)와 전 … 리유매수와 그아우윤매전(尹春)(二五)은 귀보한바와가티 준여한취조를맛고 잇든중그 최상이 만발되엿슴으로 신흥상사국(咸興檢事局)으로써 생을 모다병기 잇다는데 이상모 서는 협담하야 윤태수와안해리필녀(李弼女)(一九)를 구타져사 한것이라고한다

子婦를協力 打殺한三母子 檢局送致

【新興】나어린며누리를불근기며 때리며하야 가진학대를다하다못하야 맛츰내 지난달이십구일새벽에 때려죽이엇다는 혐의

일허버린아들

삼년만에만나니 어더먹는신세구진형상에 모자맛잡고대성통곡

【禮山】천안읍손정덕(孫正德)이란사람는 삼년전에 여섯먹은 아들의종적을알지못하야이래로 각방면에수사하든중손정덕의안해가우연이거십륙일례산시장에 왓다가어더먹는아해를보고그아해가삼년전에나갓든자긔아들이 안인가하야자서히그용모를보고 자긔아들이분명함으로깃붐을이기지못하야 붓들고 대성통곡을 하면며 그아해를다리고 본가로 갓다하는바 그아이는 지금아홉살먹도록 루리구걸하다가 엇든 와서 출엽생과재학생의 부형을 련방하고압에와가티의연금을보 집하엿스며동씨가귀경한후에는 당지홍종순(洪宗純)씨가동교교우회 향홍지회장의명의로 의연금을 계속모집하리라는데 당지

數百의鑛夫가 鑛區監督을威脅

◇鑛區處分이더디다고

【元山】당지리보석(李普錫)씨의 경영인 함남안변군보경광산(咸城鑛山)에서는지난십삼일밤 돌연히 수백명의광부가 이광산에서 광부와광청(鑛穴)을 감독하고잇는김성숙(金成淑)이라는 사람을 때려죽인다고하며 엇든는바람에 귄괴김감독은 그근처 산속으로 도망을친것이 하로가 지내여도 도라오지 아니함으로 금광사무소에서는 수백명의 광부를 포려크나큰산중을 수색하야 겨우차젓다는데 이원유는원래 성적이량호하다는 금광으로 서처근만분의 이십 삼이나되는 함유량 광맥이발견됨에따라 각처로부터 뷰광님자가 운집하는 터에 맛처광구를 결정하여주지 못한것이엿다한다

△金鍾澤 張圓 △金秀 … 圓 △金廣 … 圓 △洪宗 … 圓

씨명은다음과갓다고한다 △金鍾澤 二百圓 △文泰洙 各百圓 △石鐵根 各五十圓 △金永瑞 各三十圓 △孫錫亮 各二十圓

龍川郡廳에又復 不正事實發露

道補助金消費處不明

【新義州】학교비횡령사건으로 여론의적이되어잇는룡천(龍川)군청에는 또다시도보조비중의오백원의소비처가 불명인것이평북지방과 충장원의손에 의하여 폭로되여목하 그소비처를 조사중이라는데 학교비 횡령사건의피의자 문춘걸이가 소비한것이나아닌가고 의심된다 한다

學校費消費한 廳員은留置取調

【新義州】긔보=룡천군학교비사건은 서견(細見)지방과장출장조사의결과 동학교비 게원문춘걸(文後傑)이가 자긔취급주의학교비중에서 천여원을 소비한것을 동군좌등서무주임(佐藤庶務主任)이 책임상의립장으로오백여원을 립체하여 표면을가리워오든것이 판명되여 동피의자문춘걸은 임의 룡암포서에류치되엿다 한문의원인은 동피의자가 수개월전부터 유주축첩등 부당한 호유를한것이 의심을산 동긔라한다

昔成高普講堂 建築基金募集

【成興】경성보성고등보통학교에서는 그간 대강당이업서서 크게 불편을늣기여 오든바 금번 그신축을결의하고각지로의연금을바드러 떠낫는바 함흥에는동교교무주임주종의(朱鍾宜)씨가

하면며 그아해를다리고 본가로 갓다하는바 그아이는 지금아홉 살먹도록 루리구걸하다가 엇든 한자모를만나게 되엿것이라 한다

金浦에서도 金剛山探勝團

本報支局에서募集 九月三日午前出發

【金浦】본보김포지국에서김포자동차부와 공동주최로 천하명승지인 금강산탐승단을 모집하기로되엿다 시일은 구월삼일 김포읍에서 오전열두시 삼십분발자동차로 경성에지가서 다시 경성역발 오후세시 이십분차로 철원을 떠나 내외금강 『일만이천봉을 모조리구경한후 구월구일 아침여덜시사십분에 외금강역을 떠나경원선을거처 삼방약수포에서 피로햇든몸을 하루동안쉬이인후 다시구월십일 아침에 삼방역에서떠나 당일오후에 김포도 귀착할터이데 회비는왕복팔일간 자동차임、기차임、숙박비등모든잡비를 합하야 매인에 이십오원이라는바 아직까지 금강산의 신비한 대자연을맛보지 못한 인사는 이긔회를리용하야 팔월삼십일일까지 회비층 오원을 첨부하야 본보김포지국으로 속히신청하기를 바란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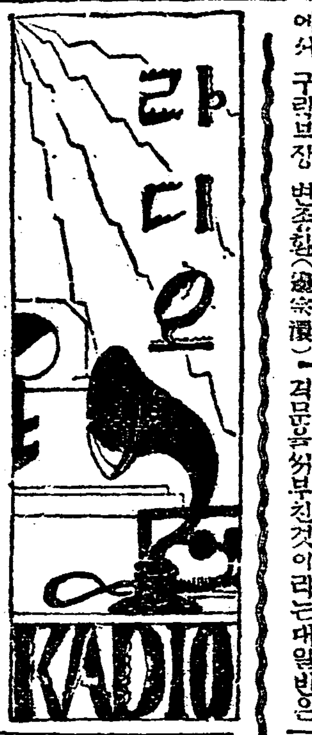
體操講習은終了 早起會를組織

本報瑞興支局主催

【瑞興】서흥에서도예정대로 십륙일에 보건체조강습을 맛치고김명덕(金明德)씨귀성파김종현(金宗鉉)황한근(黃翰根)량씨의동의로 보건조긔회(保健早起會)를정립한후매일오전륙시로부터반까지 삼십분간식 서흥운동장에서 보건체조를 하기로하고책임위원을 아래와가티 선정하얏다한다

一、指導責任委員 洪明奎 黃翰根 金錫鉉 閔泳贊 安奉烈

二、早起責任委員 張鳳鳴 李鍾敏 劉漢泳 金蓍浩 金致榮 安泰熙



八月二十日(日曜) (波長四九二米)

◇正午 時報 今日프로그람發表

◇午後○時五分 氣象通報

◇同○時三○分 뉴-스

◇同○時五○分 脚本朗讀 安鍾和 化學者 …

◇同一時四○分(B)野球試合實況 全國中等學校優勝野球大會決勝戰―甲子園球場으로부터中繼―

◇同六時(A)管絃樂 東京다듸오・오-케스트라

◇同六時二五分 修養講話 活路 車載明

◇同七時 뉴-스 天氣豫報

◇同七時三○分 獨唱

一、歌劇 보엠中의一節 풋치니作曲

二、지간되江우에……스캇릿作曲

三、또나……메깅作曲

四、앗노래……비제作曲 (歌劇카르멘中)

五、놀봄의小夜曲……토젤리作曲

六、우주를흔벗고서……山田耕作作曲

七、조회배……洪蘭坡作曲 安翰承 金元福

◇同八時 俗謠 피아노伴奏

一、遊山歌 張彩瑄

二、제비가 李翠玉

三、執杖歌

四、平壤歌

◇同八時三○分 唱劇 春香傳中 御使出道 丁正烈 吳太石 朱蘭香

◇同九時三○分(A)時報 氣象通報 뉴-스 翌日프로그람發表

◇同九時四五分 滿洲로부터中繼

韓成俊

第一放送順序

八月二十日(日曜日) (波長三四五米)

▲午前六時 라디오體操聯合大會―京城府廳前より中繼―▲但し雨天の場合は中止し東京より中繼 ▲同○時五○分 漫談 故鄕より 同一時三○分 正調江差追分 ▲同二時 家庭講座 家庭と健康(二)▲六時(A)管絃樂 ▲同六時二五分 講演少年團に就て▲同七三○時分(A) 舞臺劇 音頭 身替音頭 ▲八時三○分(B)舞臺劇 伊勢

修養講話 (午後六時二五分) 活路 車載明

人生이在世하는것을比喩컨대行人과旅客의行路에다行人은行路를善히擇定하는데活과死가달닌다

一、奮鬪努力하는데活路가잇습니다

二、知識具備하는데活路가잇습니다

三、靈的修養하는데活路가잇습니다

結論、活路를得하는者는自己人만有益이아니라全家庭과社會와國家에幸福이될것이라고確認하는바입니다

橄文靑年二名 于今껏檢束取調

海南馬山面警察에서

【海南】해남경찰서에는지난칠월말경 해남군마산면 장촌리(海南郡馬山面長村里)에 사는 윤인석(尹仁錫)(三)민대식(閔大植)(三)등 두명을 검거하여다 우금삼주일간을 계속하여취조하여오는데 그들은칠월중 동리압 게시판에애란(愛蘭)독립을 빙사한 장문의격문을써부친것이라는데일반은 압흐로진전을 주목한다고한다

慧星俱樂部定總

【安岳】지난십일일오전 열시반 안악온천(安岳溫泉)혜성구락부 사무소내에서 구락부장 변조환(邊宗煥)씨의사회로 개회하고 …

長水서는 體操中止

亦是手續問題

【長水】억센조선의건설을목표로 본사에서 전조선각지에 강

安州鐵棒團主催 對抗力技大會

本報安州支局後援

【安州】건실적 유숙한 체육단체인 안주철봉단주최와 본보안주지국후원으로 관서 각지에잇는 여러체육단체의 대항력기대회가 오는이십륙일 오후팔시부터 당지미락관에서 열니게된 바 신안주 개천기타여러지방에서 다수한선수가 출전하게될것인데 먼저번 관서력기대회에조선긔록을 돌파하니만치 이번대회는 파란이만하야 선긔록을내일는지 일반의 흥미는 컷이 대회에 결니여잇다

◇參加規定

一、參加資格 一般團體

一、申請期限 八月卄五日正午

一、申請場所 安州鐵棒團

一、參加金 不要

一、種目 捧上、引上、擧上

一、體量測定 卄五日午後七時

◇大會任員 會長金秉奎 副會長李永漢 委員長洪禹疇 審判洪禹疇 金昌涉 記錄係金鍾淑 金聖瑞 通告係金俊澤 朴允秀 救護係李昌鍾 醫員一同

大五是川工事

【惠山】한남갑산군운흥면대오시천(咸南甲山郡雲興面大五是川)은삼백여호의시가가 항상 오시천에물이 나면위험하야 파괴천수되든 가옥이잇서 주민일동은 면과타합하여 도에서보조오백원을밧고 위선금년도 공사에 착수중이라한다

兩大名勝(鰊龍窟과藥山東臺) 自動車探勝團

本報新市支局募集 中央日報支局後援

【新市】본보신시지국주최와 조선중앙일보지국후원으로 명승동룡굴과 약산동대를 탐승하기로 되엿는데 단원은이십명、탈것은 자동차、회비는사원、출발은이십일오전십시 신시발 귀착으로 동일오후십시로 되엿는바 만히참가하기를바란다고한다

獵犬專門 竊盜被逮

【大邱】경주면성동리(慶州面城東里) … 교육 … 씨의 사회로 개회하고 … 봉음에관한 문제와 보건체육에관한문제동제반사항을토의한후 선임역원을 게선하고 오후한시 반에폐회하엿다는바 선임역원은다음과갓다고한다

▲部長 … ▲庶務部長金兗信 ▲經理部長 吳宗濂 ▲財務金斗燮 吳根株 ▲體友部長 … 神植 ▲體育部長洪宗讚 ▲社交部長金兄信 ▲農村部長李 … 植 ▲體育部長表貞瑞 ▲文藝部長朴正瑞

… 文雄(二)은서 사냥개를도적하는 이상한 재주를가지고 지난륙월 삼일 시내동운정(東雲町) 서청장각(新井長吉)의집에서 시가 백원되는 사냥개를 도적하야다가 바삭하야고기로 일원에팔아먹은것을 위시하야 역시동운정(東雲町)에서 삼백원 가격되는 일본인의 사냥개를 도적하야다가 칠월십일칠에 관일이 수차잇섯는데 지난십칠일에도 동운정삼십삼번지 판본삼랑(坂本三郞)의집에서 삼백원가격의 사냥개를 도적하다가대구서원에게 체포되엿다한다

『好戰家』의末路

些少한感情으로亂鬪慘死 山二面에서생긴일

【海南】지난십삼일밤중에해남군산이면초송리(山二面草松里)큰길에서는 산이면황산리윤태주(尹泰柱)(四八)유명한 정래주(鄭泰柱)(四七)량인은사소한 감정으로 싸홈을시작하기시작하여 강은 정을무수히 란타하여직석에서 타살을하여버리고 어데로인지 자최를감초아버린 사실을 집한 해남경찰서 김사법주임이 형사대를인솔하고 현장에급행하여 무란히 마산면로하리(馬山面路下里)송림중에서 범인을 체포하여 방금엄중히 취조를한다는바 이랑인은 일정한직업이 업시 항상누구에게든지 싸홈을 걸어 술이나어더먹는 불량배라 한다

사를 파견하야 순회강습을 장수에서도 강사장현(張鉉)씨가 마지막으로 장수지국주최로 실구일부터 강게되엿든바 당국에서 사설하야 도지사의 가입시르 게정못한다하야 시일관계로 부득이주기 하게되엿다한다

鎭川小學庭球 來卄七日開催

【鎭川】진천보학생화우회(?)주최의 소학정구대회는 팔월륙일에 개최하려다가 사정에의하야 부득이 연기하엿든바래이십칠일에 개최키로결정되여 준비를착착진행중이라는바 더욱 본보진천지국의후원으로 벌서부터 인긔가 비등하야 대성황을일우울 예정인바 참가금은 무료이고우승긔외에 만흔상품이 잇슬터이라한다

蔚山庭球大會 兵營軍이優勝

【蔚山】경남울산에서는울산체육회주최와 본보울산지국후원의 남조선 개인정구대회는 예정과가티 지난십삼일 오전십시부터 울산군청코-트에서 주최한바 참가팀은김해(金海)동래(東萊)량산(梁山)등지를비롯하야 천부열뷰팀으로 개전분투한결과 우승의영예는 좌병영금옹조합팀 이등은 동래 고보팀이엿다한다

本社支局後援 浦項海水浴團

【永川】남선려행구락부주최 본보영천지국의 각신문지국후원미테 모은 포항해수욕단 일행 륙십삼명은 지난 십삼일 오전여듧시반열차로 떠낫다가 밤아홉시기등 도라왓는데 보물찻 만흔여흥이 잇섯다

忠南蹴球大會 卄一日로延期

【保寧】충남보령군주산축구단(珠山蹴球團)주최인충남축구대회는 태이십일에 개최하기로되엿든것을 본단의사정으로 인하야이십일일로연긔되엿다한다

七月七日機會 豐上에서脚戲

【新興】신흥군가평면풍상시(加平面豐上市)에서는오는칠석을긔회로하야 근래에드문 거대한비용을들여 씨름대회를 개최코자준비중인데 신진력사의 용투와농사에피곤한농민의흥미를도두기위하야들법상쌔지잇스리라고한다

地方人事

▲東田隆次郞氏(安城金融組合理事) 新任人事次本月十五日本社安城支局來訪

▲吉田正氏(安城登記所主任)同上

▲池澤實氏(鐵原道立醫院長)十八日午後七時二十一分着列車着任

▲江界郡邑面長會議 八月十五日부터兩日間江界郡會議室에서開催

▲朴春榮氏(本報德亭支局長)北朝鮮觀察團一行을引率來八月二十三日雄基向發豫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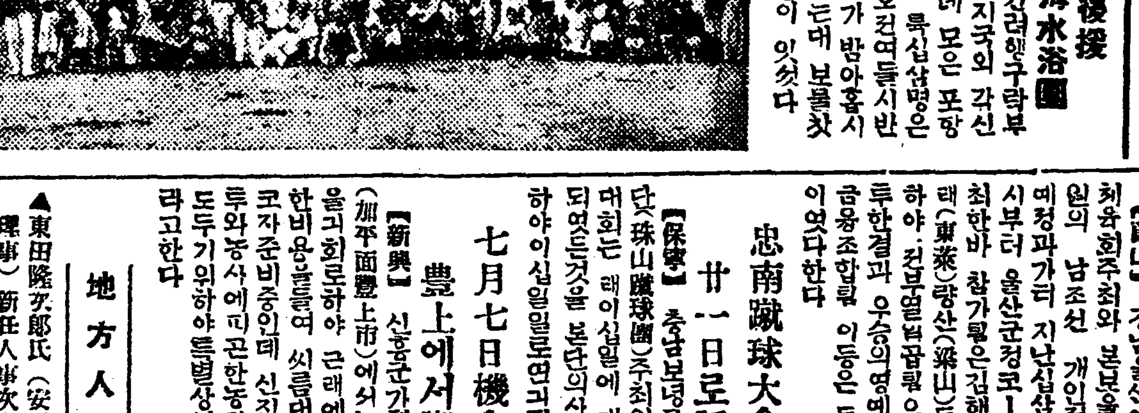
▲黃永祿氏(本報楊州支局長)同上

運動競技

近郡少年蹴球 醴泉軍이優勝

【醴泉】례천소년구락부주최와 본보례천지국후원으로 지난 십칠일 오전십시부터 당지공립보통학교운동장에서 근군소년축구대회를 열엇는데 우승의월계관은례천군에게돌아갓다한다

◇사진……해수욕단원일동



史話 雲峴宮의봄 62

琴童 作　芝山 畫

八의十一

『나도 어떠라고 단언할수는 업네』

그날밤 조성하가 자긔의장인 리호준을 차저서 거긔서 또다시 장인에게 흥선군의진정한 인격을 무룹써에 호준은 이러케 대답하엿다 그러고 말을 니엇다—

『어떠라고 단언할수는 업지만 이만치는 말할수가잇네주자네도 아다시피 이전에 그분은 대복사 제조(提調)로게시고 나는 그아래 주부로잇을적에 친히 뵈든 그분과지금의 대감과는 판히 달려강직하시고 활달하시고 작은일을 구애치 안흐시고 가난을 가난으로 아시지 안튼니 이즈음은 그날의 강직이 다 업서지시고 가난에 시들린 한생원님가치 되시지 안흿는가 베게도 그러시니까 아직 젊은 자네에게 웨 마음을보이시겟나 자네도 그만치 알고 모든일을 나무뻴게 알지 말고 꾸준히 그냥보시게 상린(常麟)이 아닌세 상린이야 니야 언제까지던 못가운데게 실것이 아니고 구름만 어드면 놉히 하늘을 부실분일세 대비마마께서는 어떠케 보시나?』

『마마께서도 저가 비올써마다 흥선군의 안부를 무르시다 는 품이 낫부게 보시지 안으신 모양입듸다』

『그것보게 웬만한 지자(智者)는 사람으로 녀기시지안는 대비마마께서 그러케 보신다니 이게 상린의 덤이나 내일 놀롯인가?』

그러고 호준은 머리를 뒤로 노피 적기면서 혼자말가치 이러케 말하엿다—

『종실의 가장(宗室家長)과 종실의 잠룡(潛龍)이 이러날것이로다』

종실의 풍운이 이러나서 일과거 성하는 축—어서 수하엿다 자긔도 종실의 권의 한사람이오 더구나 현종실의 어린되는 대왕대비를 연분상은 척권이지만 종실은대개척권되는 김씨一파의 너무도 푸르른 세력에눌리워서 손 하나 들석할 자유도 업는 조성하는 그김씨의 세력을 미워하는 심정에서는하로밧비 종실의 가장과 종실의 잠룡의 악수와 활동을바랏다

조성하가 장인 리호준의택을 하작하고 나선것은 아반의 안경은 이미 울고 거리에는 드문드문 포교나 슬윤의 무리밧게는 보이지 안는 밤은 이미 기픈 뒤엇다

그날밤 자리에 들어 가서도 성하는 잠을 이루지 못하엿다 남대문에 노피 걸려 서 그 활달한 필적을 사백년이 지난 오늘도 여권히자랑하는 『숭례문』의 석자가를 쓰고 누워잇는 그의 눈아페 련하며 어릿거렷다

―흥선군 대감 양녕대군 이될소사 결코 세상이 평하는바와가튼 대감이 아니사기를 바라옵니다 성하는 베개로 소리쌔지내여 이 주얼거렷다

?사람의 천성이란 그러케갑자기 변하는게 아니이 이전에 그러케 강직하시든 이가 갑자기지금가치 변하신 것이 첫재로 머리를 그더기지 못할일—그박게 또 한가지 자네은 대감대에 출입하면서 보앗겟지만 그대 둘재아가씨가 난에 엇기때문에 동리 허든 애들과 돈치기나 하며 연이나 날리면서 놀지만 인사범절이며 한문지식이 금중(禁中)에서 성장한 아기씨들보다도 휠신 낫지 안흔가 이개 모든 홍선군의 교훈에서 나온것일세그려 술이나 잡숫고 투전판이나 차저다닌다는 소문이 노픈 대감이 어느 겨를에 무슨 필요로 그러타호 사 교훈에 힘을 쓰시겟나? 이런것으로 보아서 대감의그 ―소위 주책업다는 일이모도 지어서 하시는 일이 아닌가 하네』

『바커도 그러케 보앗습니다 그러케 보기때문에 무슨 하교라도 게시면 저마의힘을 다 쓰랴는데 대감에서는 커게 당초에 맛지 안흐시고여 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대하십니다』

성하는 황송한듯이 장인에게 이러케 호소하엿다

『그것은 자네게 벌서 아니라지교가 잇고 시의돈 의가잇